



전북 사회복지인 신년 인사회 16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열린 2025년 전북 사회복지인 신년 인사회에 김관영 도지사와 문승우 도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036년 하계 올림픽 전북유치를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전북도>

중소기업 지원사업, 전북도가 쉽고 상세하게 알린다

종합설명회 개최, 8개 시군 순회 설명회로 맞춤형 지원 3천8백억 규모 전북 자체 지원사업 및 정부 지원사업 안내 ESG 경영 교육비대면 상담창구 운영...실질적 도움 제공

전북자치도가 지난 15일 전북중소벤처기업청과 함께 도내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실질적 경영 지원을 위해 '2025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종합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전북중기청을 비롯한 10개의 유관기관이 참여했으며 ▲수출 ▲자금 ▲창업 ▲기술개발 ▲보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북자치도의 자체 지원사업과 중소벤처기업부의 분야별 지원사업에 대해 상세히 안내했다.

먼저, 전북중기청에서는 '정부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 후, 각 주관기관에서 분야별 지원사업을 설명했다. 이어, 도는 3천800억원

규모의 100여 개의 자체 지원사업과 제도를 소개하고, 전북테크노파크에서는 전북자치도의 R&D사업과 스마트공장지원사업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ESG경영 활성화 교육이 포함돼 기업들이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고 공급망 리스크를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ESG 경영의 기본개념과 성공 사례를 공유하며,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전략을 제안했다.

도와 전북중기청은 종합설명회 이후, 오는 21일부터 2월 14일까지 무주군을 시작으로 8개 시군을 권역별로 묶어 '찾아가는 시군 시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설명회 기간 중에는 각 기관의 사업담당자와 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 지원단이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활용한 비대면 간담상담창구를 운영해 실질적인 상담과 문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행사 현장에서는 '2025년 중소기업 시책안내서'와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책자'가 배포됐으며, 설명회 참석이 어려운 기업들은 전북자치도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E-book을 통해 주요 지원사업의 내용을 간편히 확인할 수 있다.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이번 설명회에서 안내된 지원사업들이 도내 중소기업의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 경영난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

도, 지방보조금 관리 대개혁 '실적 검증'

전북자치도, 지방보조금 실적 검증 의무화...실효성 제고 전문 감사인 검증 통해 보조금 신뢰성 투명성 확보 3억 이상 보조사업 실적검증 전문감사인 구성·운영 예산 편성부터 집행, 결산까지 전 과정 관리 강화

전북자치도는 지방보조금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공 재정의 투명성과 신뢰 확보를 위해 보조금 관리 체계를 대폭 개선한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3억 이상 보조사업의 실적검증 의무화와 관련해 도 차원에서 검증된 전문 감사인 후보군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실적검증의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사업성과 검증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기존의 보조사업자가 감사인을 직접 선정하여 보조사업을 검증하는 방식이 감사인의 독립성을 저해하고, 공정한 검증을 어렵게 만든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는 도에서 제공하는 후보군 내에서

감독부서가 선정한 감사인이 보조사업을 검증하도록 함으로써 공정성 논란을 불식시키고 객관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도는 3월 중 공모 및 심사를 통해 감사인을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해 후보군을 구성할 계획이다. 또한 선정된 감사인을 대상으로 보조금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여 실적검증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하는 전문 감사인 제도가 앞으로 지방 보조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제도는 지난해 전북자치도가 추진한 '일 혁신 프로젝트'에서 발굴된 사례로, 그 의미가 크다.

아울러, 전북자치도는 지방보조금의 관리

전반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편성, 집행, 결산의 전 단계에 걸쳐 체계적인 관리방안도 마련해 추진한다.

보조사업 예산편성 단계에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사전심의 절차를 강화하고 3년 연속 유지 필요성 평가 대상 사업에 대해 예산부서의 사전검토 단계를 추가해 평가 절차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사업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500만 원 이상의 지방보조사업자는 수행하는 모든 정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2024년 회계연도 보조사업의 교부신청서와 정산보고서 등이 공시 대상이며, 보조사업자는 올해 4월 말까지 관련 정보를 등록해 공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방보조금 운영의 투명성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는 "지방보조금은 도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재원이 만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전북자치도, 도내 기업 마중물 벤처펀드1조 결성 '성큼'

초기 창업기업 벤처투자 활성화 위해 운용사 2곳 선정 창업초기(주력산업·신산업) 분야 350억 규모 펀드 결성 익산·정읍 등 시군 참여로 도내 기업 투자 유동성 풍부

전북자치도는 도내 벤처기업과 창업 중소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한 2025년 전북 혁신성장 벤처펀드 운용 투자사 2개사를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했다.

도는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3일까지 운용사 모집을 진행한 결과 총 4개 업체가 신청했으며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펀드 운용 계획, 금융투자 및 산업분야 전문성, 경력 및 투자·회수실적, 재무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를 거쳐 운용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운용사는 2개 분야, 총 2개 사로 창업초기 주력산업 분야의 '크립톤', 신산업 분야의 '비엔벤처스'다. 선정된 2개 사

는 올해 6월 안으로 조함을 결성해야 하며 도는 결성된 2개 조합에 오는 2028년까지 총 60억을 출자하게 된다. 결성액 중 최소 126억원이 관련 분야 도내 기업에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주력산업 분야 운용사인 크립톤은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역량과 도의 초기 유망기업 이전을 제 시했고 신산업 분야 운용사인 비엔벤처스의 소부장 밸류체인을 활용한 오픈이노베이션 연계와 도의 기업 이전 등을 통해 도내 기업의 밸류업 및 도의 유망기업 유치 성과가 기대된다. 도 출자사업에 시군이 국내 최초로 참여(익산 10억, 정읍 10억)하면서 벤처펀드 결성이 탄력을 받고 있다. 도는 앞

으로도 타 시군까지 펀드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 김관영 민선8기 전북자치도는 벤처펀드 1조원 시대를 목표로 매년 벤처펀드를 추가 결성하며, 출자약정액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도는 민선 8기들어 3년 만에 6천778억원(출자약정액 485억원)의 벤처펀드 결성이 예상되고 있어 누적 1조원 결성의 도정 목표 달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 혁신성장 공 벤처펀드 결성을 위한 올해 첫 파트너 선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며, "앞으로 중기부, 산업부, 농림부 등 중앙부처 및 정책출자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벤처펀드를 결성하고, 도내 창업·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전북도·시군, 기상특보에 입체적 대응 '피해 제로'

도지사-시장·군수 합동 대처...인명 등 재산피해 전무, 겨울철 자연재난 최우수기관 선정 재입증

도내 전역에 최근 1주일 여에 걸친 대설과 강풍, 한파 등 기상특보가 내린 상황에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3~24년 겨울철 자연재난(대설, 한파)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전북자치도가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도내 전체에 내려졌던 특보(대설·한파·강풍·풍랑)에서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합동으로 선제적 대응을 통한 피해 최소화에 주력했기 때문이다.

지난 6일부터 10일 사이 도내에는 정읍이 최고 33.6cm, 고창 28.1cm, 순창 24.1cm 등 평균 16.2cm의 눈이 내린데다 동부권 지역은 영하 15도 이하로 강추위가 이어졌는데도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자치도는 기상특보가 발효된 즉시

초기대응 체제에 돌입해 재해대책본부 비상1단계, 비상2단계에 돌입하는 등 연인원 3,354명의 공무원들이 비상근무를 펼치며 기상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처한 실력이 이번 기상상황에서도 빛을 발했다.

도는 해기차로 습설이 예상됨에 따라 강설 이전인 지난 6일까지 비닐하우스 등 취약시설 1천329개소 긴급 점검 및 지주 보강 안내 등 사전 예방 조치를 실시했다.

또, 대설특보가 발효된 9일까지는 4천 533개소 취약시설 예방 점검을 추가로 실시하는 등 피해 예방에 주력했다.

이와 함께 도지사 주관 도와 시군 단체장, 도 실국장 등이 합동 대처상황 점검 회의를 비롯해 행안부장관 직무 대행 주재 회의 등 도-시군-중앙 등 합동 대책회의 7차례 등 기상특보 해제 전까지



도내 전역에 최근 1주일 여에 걸친 대설과 강풍, 한파 등 기상특보가 내린 상황에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 기상 상황별 맞춤형 대책회의를 실시하는 등 피해 예방 대응 상황을 점검해 나갔다.

김관영 도지사는 "남은 겨울철 대책기

/김은지 기자



전북사회복지사협회, '사랑의열매아카데미' 선정 4차산업 핵심인재 양성에 연 1억 지원

전북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회장 박주중)는 전북사회복지관협회(회장 노영운)와 협력해 전북의 복지를 이끌어 갈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사랑의열매 전북아카데미' 사업이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올해 기획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사랑의열매 전북아카데미'는 4차산업, 복지국가, 기후위기 대응의 선순환을 이루는 사회복지현장의 새로운 성장 전략 마련을 위해 자동화·지능화 추세인 산업분야 변화에

맞추어 직무 분야의 전문성, 디지털 기술, 인공지능 활용 등 소양을 갖춘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선정 사업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연간 1억의 사업비를 지원하며 현장·학계·직능협회가 협력해 수립한 인재양성 계획에 따라 최대 3년 동안 사업을 수행한다.

협회는 3월부터 1차년도 사업대상인 사회·노인·장애인복지관 종사자 교육과목을 신설하고 실무인재 및 미래인재 과정을 운영한다. 2차년도는 거주시설, 3차년도는 소규모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박주중 사회복지사협회장은 "사회복지현장에서 혁신기술을 활용해 사회서비스의 가치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선정 사업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정소민 기자

김관영 도지사, 도민 목소리 담아 도정 설계 나선다

민선 8기 3년차 맞아 2월부터 14개 시군 순방...도민과 도정 운영 방향 공유

김관영 도지사가 민선 8기 3년 차를 맞아 오는 2월부터 시군 연두 방문에 나선다.

16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시군 연두방문은 내달 3일 전주시를 시작으로 도내 14개 시군을 순차적으로 찾아 도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도민들의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계를 넘어 더 큰 도전으로, 도민과

함께 전진하는 전북을 만들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되는 이번 연두 방문은 도민과의 열린 대화를 핵심으로 삼고 있다. 이를 통해 2024년 도정 성과를 알리고 2025년 운영계획을 공유하는 등 민선8기의 성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이번 방문은 도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도는 현 시국을 감안해 프로그램을 간소화하면서도 도민과 함께하는 현장 대화를 중심으로 운영하며, 이를 통해 지역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시장·군수와 시군의회 관계자, 지역 오피니언 리더 등과의 만남을 통해 지역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종필 도 자치행정국장은 "2025년

새해 들어 진행되는 이번 시군방문은 도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

민선 8기 3년차를 맞아 도민과 함께 전북의 더 큰 도약을 만들어가겠다"며,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도소방본부, 민간 점검업체 합동점검 통해 책임의식 강화

전북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16일 전주시내 한 음식점에서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작년 8월 부천 호텔 화재와 인천 아파트 화재 발생 후, 자체점검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마련된 자리로, 전북소방시설관리협회 전북지회장과 협회 관계자, 그리고 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과 팀장 등 총 11

명이 참석해 민간 자율 안전관리체계의 정착과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는 소방시설이 법에 맞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 관계인이 직접 또는 전문업체에 위탁해 점검하는 제도로,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해 발생한 두 건의 화재는 부실한 점검과 무분별한 이행계획 연기로 피해를 키운 사례로, 민간 자율 관리체계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됐다. 이에 소방본부는 자체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점검 대상의 10%에 대해 표본점검을 실시하고, 부실 점검 시 엄중히 처분하는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초점검 실효성 확보 방안 ▲주거 공간에 대한 전수 세대점검의 효율적 완료 방안 ▲민간 자율로 변경된 이행계획의 처리 방안 ▲민간 점검업체와 소방서 간 합동 자체점검 추진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관서별로 반기 1회 실시하는 점검업체와 소방서의 합동 자체점검을 통해 점검업체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기로 했다. 합동점검은 소방시설관리업체와 화재안전조사단이 함께 참여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현철 도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 "민간 자율 안전관리체계 정착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소방시설 점검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민주당 전북도당, "지방의원들 부적절한 행위 엄중 조치"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최근 도의원들이 전북도 공무원들에게 30억 원대 사업을 요구한 의혹에 대해 16일 "사실관계를 철저히 정확히 파악해 위법이나 부당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도당은 이날 입장을 내고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의 부적절한 행위 의혹에 대해 당은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원으로서 책무를 저버리고 도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이번 일로 도민께 심려를 끼친 점을 무겁게 받아들

이며 도민들이 공정하고 책임 있는 정치를 기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최근 전북도의원 2명은 도청 공무원들 여러 차례 자신의 의회 사무실로

박희승 의원, '농지은행 활성화 청년농 농지 우선' 대표 발의

박희승 의원(남원정수읍임실군)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임대 후 양도한 상속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통해 비농업인 소유 상속농지 매입을 확대하고, 해당 농지를 청년농업인 등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 활성화 및 청년농 농지 우선 공급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희승 의원

가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23년 기준, 농업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52.6%에 달하는 등 지속가능한 영농 기반이 위협을 받고 있다.

개정안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가 한국농어촌공사에 상속받은 농지를 8년 이상 위탁해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후 그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임대기간에 비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받은 상속농지를 청년농업인 등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 1990년 약 6백66만 명에 달했던 농가인구는 23년 2백9만 명으로 급감했는데 특히 청년층 등의 유출로 농

지은행은 "농촌이 고령화되고 있으나 농지를 상속받아도 도시에 거주하는 이들에게 자경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 청년농의 경우 자본이나 농지거래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고 기존 소유자와의 유대 형성 미흡 등으로 현실적인 장벽이 있다. 농지은행의 공적 역할을 확대해 농지의 세분화를 막아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는 동시에 청년농 등 실수요자에게 농지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지방소멸을 완화하려는 취지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목 기자

불러 30억 원대 전력 절감 사업을 하도록 요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자리에는 이 사업과 관련한 업자도 함께 있었다. 특히 한 도의원은 도청이 이 사업을 하지 않을 시 예산 삭감 등 불이익을 주고 각종 자료도 요청하겠다고 말한 것

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는 "좋은 전력 절감 방법이 있길래 업자를 소개한 것일 뿐"이라며 "예산 삭감 등을 운운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김관 기자

올겨울과 같이 급격한 기온 변화를 보이는 경우, 블랙 아이스가 발생 하기 쉽습니다

블랙 아이스 상승 발생 지역

교량

고가차도

터널·지하차도

급커브 구간

★도로가 얼기 쉬운 곳에서 감속운전 과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는 필수입니다

전주시, 2025년 주요업무 추진 위해 국회 찾아

윤동욱 부시장 비롯, 간부 공무원들 국회 찾아 경제 구현 등 업무계획 추진 협조 요청

전주시가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시정 핵심과제 추진과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연초부터 발 빠른 국회 공략에 나섰다.

윤동욱 부시장을 비롯한 전주시 간부 공무원들은 16일 국회를 찾아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강한 경제 구현과 전주의 큰 꿈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국가 예산 확보와 2025년 시정 주요업무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윤 부시장과 주요 간부공무원들은 전북지역 국회의원실을 차례대로 찾아다니며 2025년 전주시 현안·역점사업들의 추진 방향과 당위성을 설명했



윤동욱 부시장

다.

또,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과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민생경제를 보듬기 위한 국가예산 확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시가 이날 건의한 국가예산 주요 사업은 ▲글로벌 영화영상 혁신기술 교육거점 조성 '한국영화기술아카데미 전주분원 설치' ▲영화의 제작과 활용 전 과정에 대한 원스톱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AI 기반 VFX 후반

제작시설 구축' ▲지역의 전략산업 연계·활용을 통해 가상융합산업 거점을 조성하는 '전북전주 가상융합산업 콤플렉스 조성' 등이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해 국회에서 2025년 정부예산안이 증액 없이 통과된 만큼 국회 단계 증액을 목표로 삼았던 주요 현안 사업인 ▲역사문화관광 외연을 구도심 전반으로 확장하는 '전주부성 복원·정비' ▲사회통합과 치유의 가치를 지향하는 '국립모두예술 콤플렉스 건립' ▲미래형 한국 정신문화 정립을 선도할 '간재선비문화수련원 조성' ▲주력산업과 첨단기술이 융합된 특화과학복합문화공간이 될 '국

립 전주전문과학관 조성' 등 6개 사업에 대해서도 정부 조기추경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윤동욱 부시장은 "2025년도 정부의 조기 추경에 대비해 지난해 확보하지 못한 사업예산 확보와 더불어 2026년도 신규사업 예산도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순기에 맞춰 국회와 사업 관련 부처를 자주 찾아 건의하겠다"면서 "지역 정치권, 전북특별자치도 등과 협조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행복을 누리고, 나날이 변화해 꿈이 실현되는 도시 전주를 만들어 나가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무주 덕유산리조트 겨울철 소방안전 점검

전북자치도소방본부, 신속 대응체계 구축 이용객 안전 확보

전북자치도소방본부는 16일 무주 덕유산리조트를 방문해 겨울철 소방안전대책과 곤돌라 및 리프트 등 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설 명절 황금연휴를 앞두고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무주 덕유산리조트의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 점검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이오숙 본부장은 이날 ▲무주 덕유산리조트 내 티롤호텔의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예방 대책 점검 ▲투숙객 및 이용객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관계자 안전수칙 준수 상황 ▲곤돌라, 리프트 등 주요 시설 현장 시찰 ▲산도(케이블카, 리프트) 시설의 구조 안전대책 점검

등을 실시했다.

이 본부장은 "설 명절을 맞아 많은 방문객들이 안심하고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전북소방은 빈틈없는 안전관리와 신속한 대응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산도설비는 총 17대(케이블카 3대, 곤돌라 1대, 리프트 13대)가 운영 중이다. 전북소방은 사고 발생에 대비해 구조장비 21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 1회 이상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하며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정혜민 기자

전주국제영화제, 골목상권 활성화 지역 소상공인 제휴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소상공인 지원 동참, 기존 44개에서 최대 60개로 확대 운영

전주시가 극심한 위기에 처한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하는 가운데 전주국제영화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에 동참하기로 했다.

16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국제영화제는 영화제 방문객과 지역 상권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영화제 기간 제휴업체 운영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제휴업체 확대 운영은 전주지역의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들과 협력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영화제를 찾는 관객들에게 더욱 풍성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시와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는 지난해 44개였던 제휴업체를 올해는 최대 60개까지 제휴업체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카페와 식당을 중심으로 운

영해온 제휴업체를 올해는 의류점과 안경점, 미용실, 편의점 등 다양한 업종을 포함시켜 보다 폭넓은 혜택을 제공기로 했다.

특히 시는 전주국제영화제가 영화의 거리와 주변 골목상권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영화제 기간 전주를 찾는 수만 명의 국내외 관객들에게 제휴업체 정보를 제공하고, 관객들이 적극적으로 지역 상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인 스태프투어 이벤트는 관객들이 제휴업체를 방문할 때마다 스태프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경품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관객들의 자연스러운 제휴업체 방문을 유도해 지역 상인들에게는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가져다 줄 것

으로 기대된다.

제휴업체들도 영화제 개최 전부터 전주국제영화제와 협력해 500여 명의 영화제 스태프와 자원활동가들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으로, 영화제에 참여한 스태프와 자원활동가들은 지역 내 다양한 제휴업체를 적극 이용하며 영화제 공식 SNS와 웹사이트, 현장 안내서 등을 통해 제휴업체 관련 프로모션을 널리 홍보하게 된다.

무엇보다 시는 이번 제휴업체 확대 운영 계획을 단계적으로 실천함으로써 단기적인 매출 증대뿐만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들과의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 전주국제영화제가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문화 축제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시와 전주국제영화제는 앞

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와 문화적 가치 확산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플랫폼이 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단순히 영화 상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주시 전역의 소상공인들과 협력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 또한 영화제의 중요한 목표"라며 "다양한 업종의 제휴업체를 통해 관객들이 전주를 더 깊이 경험하고, 지역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국제영화제는 오는 3월부터 영화의 거리 및 객리단길, 웨리단길 중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방문을 통해 사업 안내 및 제휴업체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31일까지 청년취업 2000 참여기업 모집

선정기업에 1년간 매월 70만 원 채용지원금 지급, 취업 청년 2년 근속시 취업장려금 지급

전주시가 청년이 찾아오고 머물고 싶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올해도 청년 구직자를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고용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지역 청년들의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들의 인력 채용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취업 2000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18세부터 39세까지 미취업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에는 안정적인 인력수급을

돕기 위한 고용촉진 사업으로, 시는 참여기업 모집을 거쳐 청년 1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공개 모집과 서류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는 청년들의 정규직 전환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최대 1년간 매월 70만 원의 채용지원금이 지원된다.

또한 참여기업에 취업한 청년취업자에게도 2년 근속 시 최대 300만 원의 취업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시 근로자 3인 이상인 전주지역 기업으로, 상시 고용인원 외 정규직 추가채용 계획이 있어야 한다.

또, 매월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지원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후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전주시 청년정책과(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13 대우빌딩 8층)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전주시 청년정책과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지역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들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함께 실질적인 취업장려금 지원을 통해 장기적인 경력 개발을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전동킥보드 타던 20대, 주차장으로 추락해 숨겨

전주에서 개인형이동장치(PM)인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던 20대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조사 중이다.

16일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55분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주차장에 A씨(20대)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A씨는 머리 등이 크게 다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상태였다. A씨는 소방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

졌다.

경찰은 A씨 주변에 전동킥보드가 있었던 점 등을 미루볼 때 그가 원룸가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1.7m 아래의 주차장으로 떨어져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어두운 곳에서 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음주 여부와 주행 거리,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병원·호성전주병원 간호부, 2025년 백만천사 1호

소외 이웃 돌봄 앞장...취약계층을 위한 성금 200만 원 기부

전주병원과 호성전주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기부를 통해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는 데 앞장선 전주시복지재단의 '2025년 1호 백만천사'가 됐다.

전주시복지재단(이사장 윤방섭)은 16일 2025년 새해를 맞아 백만천사 기부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2025년 백만천사 1호'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

영광의 올해 첫 번째 백만천사의 주인공은 전주병원·호성전주병원 간호부(간호원장 문영희)로, 이날 전주 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200만 원을 기부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호성전주병원 간호부 직원들이 천사데이행사를 통해 모은 수익금과 친절왕(홍정화 직원)으로 뽑혀 받은 상금 전액을 더해 마련한 것으로, 추운 겨울을 보내고 전주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부를 결정했다.

문영희 전주병원 간호원장은 "아픈 환자들을 최선을 다해 돌보고, 힘든

이웃들을 돌아볼 줄 아는 직원들이 항상 자랑스럽다"면서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전달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윤방섭 전주시복지재단 이사장은 "새해 백만천사의 첫 시작을 열어준 전주병원 간호부와 호성전주병원 간호부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기부해주신 성금은 더 많은 시민이 나눔에 동참하는 귀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백만천사는 1년에 100만 원 이상을 기부하는 캠페인으로, ▲의미 있는 날을 더 의미 있게 하는 기념일 기부 ▲소중함 사람의 기쁜 날을 축하하는 선물 기부 등 자신만의 특별한 사연이 담긴 기부로도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복지재단(063-281-0030)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공공근로사업 안전보건 교육 진행

2025년 제1단계 안전보건 교육

전주시는 16일 시청 강당에서 2025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 현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공근로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소개하고,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들이 작업 환경에서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인지함으로써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교육에는 박정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 박정열 차장이 강사로 나서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또, ▲안전보건 기본 수칙 ▲위험 요소 파악 및 관리법 ▲응급상황 시 대처법 ▲안전한 작업 절차 등을 안내했다.

이와 관련 올해 전주시 1단계 공공근로사업은 ▲전주 첫마중길 환경정비 사업 ▲이동노동자 센터 운영 사업 ▲온두레공동체 공유공간 관리 사업 등



전주시는 16일 시청 강당에서 2025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 현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총 62개 사업이 선정됐으며, 125명의 근로자 중 81명이 현업종사자이다.

김혜숙 전주시 일자리정책과장은 "공공근로 현장은 비교적 간단한 작업이 주를 이루지만, 안전사고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번 교육을 통해 근로자들이 안전한 작업 환

/김영태 기자

전주시청 로비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매행사 열려

전주시는 16일 시청 1층 로비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행사를 가졌다.

전북장애인생산품판매사업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전주시민과 시청 직원들에게 다양한 장애인 생산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제품의 종류와 품질의 우수성을 알려 실제 구매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북지역 24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생산품이 전시됐으며, 설 명절을 앞두고 참가팀과 들기름, 구운 소금, 한지양말, 누룽지, 물티슈, 김선물 세트 등도 판매됐다.

박은주 전주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중증장애인들의 자립과 사회적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관심과 응원을 보내준 전주시 직원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중증장애인들이 더 많은 사람과 소통하고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와 기회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 사회적경제기업 특별 할인전 마련

설맞이 프로모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최대 20% 할인...오는 30일까지

79개사 참여, 온라인 70개 제품·오프라인 180개 제품...착한 소비로 설 명절 물가 잡는다

전북자치도는 설 명절을 맞아 도민들이 알뜰한 소비를 실천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도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착한 소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사회적경제기업 79개사가 함께 참여한다.

온라인 할인전은 우체국쇼핑몰(mall.epost.go.kr) 내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업 브랜드관'을 통해 진행되며, 42개 기업의 70여 개 제품이 오는 30일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된다. 도민들은 제품 구매 시 할인 쿠폰을 다운로드해 사용할 수 있다.



전북자치도는 설 명절을 맞아 도민들의 알뜰한 소비 실천과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특별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오프라인 할인전은 금암동 종합경기장 부근에 위치한 생생나눔 공동판매장에서 열린다.

37개 기업의 180여 개 제품이 최대 2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되며, 예산 소진 시 행사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우수한 제품을 알리고 착한 가격으로 제공함으로써 위축된 민간소비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이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가 준비한 이번 행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 금융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팀(063-280-378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소민 기자



국민연금, 취약계층 아동에 2억여 원 후원

2013년부터 '디딤씨앗통장' 참여...7,515명 자립 도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16일 유족연금 수급아동의 자립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후원금 2억 1,000만 원을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에 전달했다.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안정적인 미래로 도약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는 아동자산형성 사업이다. 통장을 개설한 아동이 후원자의 도움을 받아 저축하면, 월 10만 원 내에서 국가(지자체) 지원금이 1:2 비율로 추가 저축된다.

지난 2013년부터 '디딤씨앗통장' 사업에 참여 중인 공단은 작년까지

7,515명의 아동에게 37억 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350명의 아동에게 12개월 동안 매월 5만 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김태현 이사장은 "이번 후원이 경제적 어려움 아동과 청소년에게 안정적인 미래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미래세대의 빈곤 대물림 문제를 해결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준호 기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 제9·10대 지회장 이·취임식 개최

제9대 회장(박숙영) 이임 및 제10대 회장(소정미) 취임...전북 여성경제인 권익 향상 다짐

16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개최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 회장 이·취임식에서 제10대 신임 회장으로 소정미 회장이 취임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박노섭 상근부회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안태용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청장,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기관 단체장, 도내 여성 기업인 등 총 200여명이 참석해 제 10대 회장 취임을 축하했다.

전임 박숙영 회장은 "회원 여러분의 협력과 헌신이 있었기에 3년 임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각자의 힘이 모여 큰 변화를 이끌어 냈고 전북지회

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었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소정미 회장은 "도약하는 여성기업, 함께 여는 전북의 미래"를 슬로건으로 앞으로 주어진 임기 동안 도내 여성 기업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전북지회의 양적, 질적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 이취임식 행사에서 ▲이임사 취임사 ▲기이양식 ▲격려사 ▲축사 ▲발언성기업인 포상 ▲공포패 수여를 진행했다. 모범 여성 기업인으로 선정된 데이나이스호텔 박은 대표이사, 호산공 동법률사무소 국순화 변호사는 도지사 표창을, 송은숙 (유)우림환경 대표는 교육감 표창을 수상했다.

행사 참석자 전원엔 '전북특별자치도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를 위한 단체 퍼포먼스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전북의 발전과 올림픽 유치를 향한 염원을 표현했다.

개회사 및 축사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박노섭 상근부회장의 격려사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 축사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 축사 ▲전주시의회 남관우 시의장 축사 ▲안태용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청장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김관영 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여성기업인의 탁월한 역량이 전북 경제의 미래를 희망으로 채우고 있다"며, "기업하기 더 좋은 환경 조성으로 여성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

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1999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해 설립된 최초의 '별칭 여성 단체'로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경영활동 및 판로지원 등 여성기업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국 19개 지회와 3,2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전북지역의 여성경제인을 대표하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는 1999년 7월에 창립해 현재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한 창업보육센터 운영,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 등 여성 창업을 독려하고 있고, 여성기업 공공판로 확대를 위한 여성기업확산서 발급업무도 진행하고 있다.

/최준호 기자

임승식 의원 "정부 벼 재배면적 감축, 쌀 수급 문제 해결할 수 없어"

정부 벼 재배면적 8만ha 감축 목표, 전북은 1만2,000ha 감축... "식량주권 확보 위해 적정 수준 벼 재배면적 확보해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승식 의원(정읍1·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근시안적이고 일방적인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임 의원의 주장은 정부가 쌀 수급 조절을 위해 올해부터 벼 재배면적 8만ha를 감축하기로 하고 각 시도별 쌀 생산량 기준 배분면적을 통보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 방침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전체 벼 재배면적(10만 4,348ha)의 15.2%에 해당하는 1만 2,163ha를 전라작물·경관작물 등 타작물로 전환하거나 친환경인증 전환, 휴경 등으로 감축해야 한

다. 더욱이 정부는 미이행 농가에 대해 공공비축미 배정을 제외하고 목표 미달성 시·도는 공공비축 배정물량을 감축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임 의원은 "이러한 정부의 방침은 농민들의 영농권 침해는 물론이고 경작 자율권과 작물 선택권 등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임 의원은 "정부가 목표로 하는 8만ha에서 생산되는 쌀의 양은 40만여 톤으로 정부가 매년 수입하는 쌀을 감축할 40만 8천 톤과 비슷한 수준이다"며, "쌀을 수입하면서 오히려 쌀 과잉공급



임승식 도의원

의 원인을 농민들 탓을 하고 있으며 수입용 쌀을 그대로 두고 재배면적만 감축해서는 쌀 수급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임 의원은 "국내 벼 재배면적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데 2014년 81만 5,506ha에서 지난해 69만 7,714ha로 11년 동안 매년 평균 1만 700ha 이상 감소하고 있다"고 밝히며 "정부는 근시안적으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실시할 게 아니라, 최소한 식량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

정 수준의 벼 재배면적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후재난으로 전 세계가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 정부는 오히려 농민의 영농권을 제한하며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고 있어 식량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임승식 의원은 "벼 재배면적 감축은 국내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을 중심에 두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정부의 근시안적이고 일방적인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최준호 기자

농촌진흥청, 연구직 공무원 20명 경력경쟁 채용 공고

디지털육종·생명유전·농공 등 8개 직류 총 20명 선발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이 2025년도 연구직 공무원 경력경쟁 채용 선발 계획을 공고했다.

이번에는 디지털 육종, 스마트 농업, 미생물 활용 연구 등 전문가 채용에 중점을 두고 생명유전, 농공, 원예 등 8개 직류에서 총 20명을 선발한다. 18세 이상(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관련 전공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객관식 필기시험(사지선다형, 분야별 전공 4과목)은 4월19일 치러지고 필기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서류전형과 심층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

다. 응시원서는 2월 18일부터 21일까지 농촌진흥청 온라인 원서접수 시스템(http://apply.rda.go.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농촌진흥청 누리집(http://www.rda.go.kr)에서 확인하거나,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063-238-0235)로 문의하면 된다.

농촌진흥청 운영상 운영지원과장은 "농촌진흥청은 미래 농업 혁신을 앞당기기 위해 다양한 학문 분야와의 융합 연구에 중점 추진하고 있다"며, "농업과 농촌의 밝은 미래를 열어갈 유능



한 인재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한국산업단지공단 익산지사, 경영자협의회와 나눔행사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 익산지사(지사장 임찬호)는 16일 서강지역 아동센터(대표 김혁주)와 해미지역아동센터(대표 김상섭)를 방문해 익산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와 함께 사랑나눔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사회공헌활동에서는 익산지역의 저소득 아동들을 위한 학습지도·생계지원을 위해 기관별로 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의 은누리상품권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에는 익산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회장 김강훈)도 함께 참여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익산지사는 지역사회 상생·협력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최준호 기자

전주역 임시주차장 전면 개방으로 주차 편의 개선

설 명절을 앞두고 전주역 전면 임시주차장이 오는 20일부터 개방된다. 전주시와 국가철도공단, 코레일은 전주역 공사 중 역 교차로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이용객들에게 편리한 주차 환경 제공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전주역 전면 임시주차장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임시주차장은 전주역과 클래식아파트 사이 전주역 광장 우측 공간에 총 154면으로 조성됐다. 주차장은 주차관리 시스템을 통해 24시간 운영되며, 주차요금은 기본 30분 1천 원, 추가 10분 당 300원, 1일 주차 1만 원이다. 단, 15분 이내 출차할 경우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열차 이용객은 30%, 경차·장애인·유공자 등은 50%까지 각각 할인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전면 임시주차장 운영으로



이용객들의 주차 불편을 일부 해소하고,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현재 운영 중인 전주역 뒤편(장재마을) 후면 임시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타워 조성 공사를 위해 오는 2월 3일부터 운영을 중지할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아동 학대인가? 악성 민원인가?

유치원서 담임교사가 의자를 빼내 아이 '콧당'... 전주조총 "생활 지도 행위" · 학부모 측 "추가 피해 있어"

최근 전주 시내 한 유치원에서 담임교사가 원아의 의자를 뒤로 빼서 엉덩방아를 찧자 유치원측은 교육을 위한 지도로, 원아의 학부모는 아동 학대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양측 간의 시비가 일고 있다.

전북특자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총)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유치원을 통해 입수한 CCTV 영상 속에서는 A군이 담임교사 B씨를 끌어안고 입맞춤을 하는 등 애정표현을 하는 모습도 다수 포착돼 있어 학대로 보기에 어려운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북교총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의자를 빼는 영상을 단편적으로 보면 오히려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유치원 측은 의자 끝에 걸터앉아 있어 바르게 앉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넘어질 수 있다는 지도를 위한 행위"다

"입수한 영상을 보면 평소 아이는 의자에 바르게 앉지 못하고 장난이 심한 편이어서 교사가 지속적으로 바른 자세로 앉을 것을 지도하는 장면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교사 B씨는 "해당 원아에게 '악마'라는 표현과 별도의 테이블에서 혼자 밥을 먹게 해 양파를 만들었다는 학부모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B씨는 '악마'라는 말을 사용한 적도 없고 급식 시간에 주위 원아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불만에 A군과 자신이 교실

원탁에서 식사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A군의 학부모 C씨는 사건 발생 이후 유치원을 방문해 욕설을 하며 걸옷을 벗어 던지고, 의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의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며 "아동 학대는 수사기관에서 조사해서 혐의가 드러나면 처벌받아야 하지만 아직 조사가 시작되지 않은 단계에서 교육 현장을 찾아가 위협적인 언사와 행동을 하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동참한 같은 유치원의 한 학부모는 "B군과 제 아이는 3년간 같은 반이었다. 3년간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이었다"며 "교사 B씨는 평소 아이들에게 따뜻했다는 평을 받았으

데 졸업을 앞두고 이런 상황이 발생해 안타까운 마음에 기자회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학부모 C씨는 "교원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실은 대부분 왜곡되거나 과장됐다"며 "교사 B씨는 우리 아이 혼자 밥을 먹게 하고, 밥을 먹지 못하게 해 토하게 하는 등 두 달간 피해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걸옷을 벗어 던지고 큰 소리로 얘기하긴 했지만 의자는 유치원 관계자들이 말리는 과정에서 넘어진 것이지 발로 간어찬 적은 없다"며 "아이에게 물어보니 입맞춤을 한 것도 사건 발생 직후 한 번 뿐이었다"고 설명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대, 120억 규모 '통합정보시스템' 추진 '자세대 통합정보시스템 1단계 구축 사업 착수보고회' 개최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120억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정보화 혁신 프로젝트에 돌입했다.

이를 위해 전북대는 지난 16일 대학 구성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세대 통합정보시스템 1단계 구축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는 국립대학에서는 보기 드문 대규모 프로젝트로 평가받고 있다.

전북대 양오봉 총장은 취임 이후 지난 15년간 사용해 온 노후 정보시스템으로는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자세대 정보화 시스템 구축을 강조해 왔다. 이를 'The Best AI University'라

는 비전과 함께 ▲All Digital, ▲Data Driven, ▲Intelligent Service, ▲Cloud First, ▲Trusted System 등의 5대 목표를 중점으로 정보화 분야의 담대한 혁신을 약속했다.

전북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학사, 행정, 포털, 모바일 서비스 등 다양한 부문에서 혁신에 나선다. 우선, 데이터 표준관리체계를 수립하고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을 구축해 통합정보시스템의 데이터를 표준화함으로써 향후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2025학년도 특수학급 52개 신·증설

올해 10대 핵심과제로 특수교육 재선정... 특수교육대상자 학습권 보장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권과 학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올해도 특수학급을 대폭 증설한다.

전북교육청은 2025년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52개 신·증설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61학급 신·증설에 이은 2년 연속 과감한 추진으로 주목받는다.

이는 2024년부터 특수교육대상자가 1

명이라도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특수학급 신·증설 기준을 완화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2023년 26개에 머물던 특수학급 신·증설이 지난해에는 61개, 올해는 52개로 확대됐다. 유치원 9학급, 초등학교 28학급, 중학교 8학급, 고등학교 2학급, 특수학교 5학급 등이다.

이 외에도 특수학급 설치가 필요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진학수요를 파악해 특수학급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사전예고제, 특수학급 설치 조례도 마련한다.

특수학교 설립 확대도 계속된다. 장수군 계곡면에 들어설 동부산악원 특수학교는 202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설립 중이다.

군산의 문화예술체육 중점 특수학교

와 전주 직업중점형 특수학교는 2027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중이다.

김윤범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단 한 명의 특수교육대상학생도 소외되지 않는 더 특별한 전북특수교육을 만들어가기 위해 학생이 중심에 있는 특수교육 정책을 전개하겠다"며 "학생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주대 편용우 교수, 한국일본언어문화학회 수상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 일본언어문화학과 편용우 교수(사진)가 한국일본언어문화학회의 우수연구자상을 수상했다.

한국일본언어문화학회는 일본의 언어와 문화와 관련된 인문학 전반에 관한 연구와 이와 관련 있는 한국의 언어 문화를 대상으로 비교 대조 연구 및 일본 관련 연구자들의 연구발표 학문 교류 등을 위한 전국 규모의 학회다.

이번 수상자 선정은 2024년 한국일본언어문화학회와 관련 학계에 기여한 연구자를 발굴해 우수연구자상과 신진우수연구자상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편용우 교수는 "유려 학회인 한국일본언어문화학회의 우수연구자상 수상은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며, 앞으로 연구와 봉사에 더 매진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최성민 기자

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TF' 구성·운영... 전 부서·학교 청렴 총력

운동부 운영·현장학습 등 외부 체감도 취약분야·인사제도 등 내부 운영 문제 분석... 실질적 대책 마련

전북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종합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전 부서 차원의 협력 체계를 가동,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는 서거석 교육감이 지난 13일 전략회의에서 "청렴은 특정 부서의 과제가 아닌 전 부서와 학교가 함께 실천해야

할 공동의 책임"이라며 "모든 구성원의 협력과 실행 가능한 대책 마련을 강구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

전북교육청은 청렴도 향상 TF를 구성·운영해 조직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청렴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청렴도 향상 TF는 도교육청 내 부패 취약분야 업무담당 팀장으로 구성했다. 당장 올해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지난 15일 종합 청렴도 취약 분야 개선 협의회를 열고,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청렴도 향상 TF는 운동부 운영, 현장 학습·수학여행·수련회 관리, 방과후학교 운영 등 외부 체감도 취약 분야, 조직

문화, 인사제도 등 내부 운영 문제를 집중 분석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TF는 연중 운영되며, 이를 통해 발굴된 개선 과제와 방안을 바탕으로 2025년도 청렴 정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최종보고 직무연수'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원장 민완성)은 지난 16일 전주교육대학교에서 2024학년도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최종보고 직무연수'를 운영했다.

이번 최종보고 직무연수는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대상 교사, 참관 희망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대학기관 관계자 등 총 250명이 참석해 연구 결과를 공유하

고자 마련된 자리다. 이를 통해 교육현장에 실천적 학습문화 정착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2024학년도 특별연수 교사 82명은 국내 위탁연수기관 대학과 전문 관계기관 등에서 전북교육 정책 관련 주제에 따라 개인 연구를 수행했으며, 다양한 특강 및 워크숍에 참여해 교원 역량 강화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발표는 ▲학력신장 ▲기초학력 신장 ▲수업 혁신 ▲진로진학 지도 ▲미래교육 ▲교원 신장 ▲특수교육 등 7개 과정으로 진행됐으며, 질의응답을 통해 연구 내용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민완성 원장은 "2024학년도 학습연구년 연구 성과가 교육 현장에 확산되어 전북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학력신장을 견인하는 실사구시 연수를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고, 실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학습연구년 특별연수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독감과 감기 이렇게 달라요

인플루엔자 A, B, C바이러스	원인	200여 가지 바이러스
갑자기	시작	서서히
고열(38℃ 이상)	고열	고열은 드물다
때때로	콧물·인후통	흔하다
흔하다	두통, 근육통, 피로감	약하다
백신, 항바이러스제	예방약	없다
타미플루, 리렌자	치료약	대중요법

독감 예방법

- 최우선적인 예방 전략은 독감 예방접종이다
- 기침할 때 휴지(옷깃)로 입을 가린다
- 손을 자주 씻어 손에 묻은 바이러스를 없앤다
-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가급적 피한다
- 외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한다
- 증상이 발생하면 곧바로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한다





익산시, 농기계 등화장치 무상 지원... 농업인 안전 확보

익산시가 도로주행형 농업기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등화장치 부착 지원을 추진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경운기와 트랙터는 주행속도가 느리고 야간·우천 주행 시 식별이 어려워 자동차와 충돌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다. 이에 익산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17년부터 농업기계 1,486대에 등화장치 부착을 무료로 지원했다.

올해는 150대를 지원할 예정으로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주소지 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경운기 또는 트랙터를 보유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신청자 중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고령자를 우선 선정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가공인시험기관에서 품질보증 받은 등화장치를 농업기계에 무료로 부착할 수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음식물쓰레기 감량 대회 우수 아파트 4곳 시상

정읍시는 지난해 RFID 기반 음식물쓰레기 감량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정읍 공공실버주택과 수성주공2차아파트를 최우수상으로, 신흥장미2차아파트와 부영2차아파트를 우수상으로 선정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 RFID 기반 종량제를 도입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매년 감량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RFID 종량제는 카드를 인식해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면 배출자와 배출된 음식물 쓰레기의 무게 정보를 환경부 중앙시스템으로 전송해 수수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번 대회는 약 46개 공동주택 단지가 참여했는데, 전년도 대비 감량률을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참여 단지 중 32개 단지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데 성공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전년 참가 아파트 배출량 대비 약 1.4%, 총 26톤의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아파트 2곳과 우수상 2곳은 최대 105만원 상당의 청소 관련 용품을 지원받는다.

/정읍=김정인 기자



설 명절 군산 농수특산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군산로컬푸드직매장(박물관점), 군산로컬푸드복합센터(경암점)이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지난 15일부터 '군산 농수특산물 선물세트' 판매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지역 농수특산물 소비 활성화로 어려운 지역 농어가를 살리고, 소비자는 우수 농수특산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군산지역의 과일 선물세트, 울의 장아찌, 한과, 꽃게장, 박대, 건어물, 김, 축산물 등 50여 개의 우수한 설 명절 선물세트가 준비되어 있으며, 할인된 가격으로 원하는 상품을 직접 구성할 수도 있다.

주문은 현장 구매, 전화로 가능하며, 군산사랑상품권(간류, 모바일)으로 결제가 가능하다. 단, 택배 배송 주문은 23일 오전까지 받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로컬푸드직매장(박물관점) (063-443-1115)와 군산로컬푸드복합센터(경암점) (063-442-0067)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고독사 예방 시 도입 협약

네이버클라우드와 '클로바 케어콜' 도입 업무협약... 인공지능 건강·생활 돌봄 서비스

익산시가 네이버클라우드와 손잡고 고독사 위험이 큰 1인 가구의 외로움 해소와 사회적 고립 예방에 집중한다.

익산시는 지난 16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클로바 케어콜'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현울 익산시장과 옥상훈 네이버 클라우드 리더 등이 참석했다.

'클로바 케어콜'은 네이버의 초대규모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대상자와 자연스러운 대화로 건강과 일상생활을 돌보는 서비스다. 인공지능은 대상자와의 지난 대화를 기억해 맞춤형 대화를 제공하고, 정서적 공감으로 따뜻한 말벗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협약을 통해 네이버클라우드는 클로바 케어콜의 돌봄 복지 분야 활용에 협력하고, 익산시는 서비스 지원 대상자 선정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적으로 지원한다.

시는 중장년 1인 가구와 고립 은둔 청년 등 고독사 위험이 높은 계층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며, 위기 징후 발견 시 즉각 대응해 복지서비스와 연계



할 계획이다. 정현울 시장은 "클로바 케어콜 도입으로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의 효과를 높이고 신속한 위기 상황 대응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고독사의 심각idade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내장산 '히든로드' 겨울 시리즈 출시

승우여행사와 '순백설화'·'빙상가설' 출시, 이원일 스타셰프 개발 요리 맛보기

정읍시가 새해 시작과 함께 '내장산 365', 즉 내장산을 사계절 관광지로 브랜드 하기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가을 트레킹 상품인 '내장산 히든로드(이하 히든로드)'의 성공적인 운영에 힘입어 이달 초 겨울 시리즈인 '순백설화(純白雪花)', '빙상가설(氷上加雪)'을 출시했다.

코스는 가을 상품인 '오색단풍 히든길', '산천유수 히든길'과 같은 코스인 '내장산 추령옛길(이하 추령옛길)'과 '내장호 둘레길&솔티슈엿길(이하 솔티슈엿길)'이다.

단풍의 대명사인 내장산은 예로부터 압도적인 설경(雪國)으로도 또 다른 감동을 선사하는 설경 명소다. 굳게 뻗은 단풍나무 사이로 펼쳐지는 설경과 순백의 눈꽃을 피운 단풍나무, 비자림과 굴거리나무 군락지의 날카로운 푸른 빛과 눈에 덮인 새하얀 바위 절벽의 어



우러짐은 절경이다. 중급 등산코스인 '추령옛길'은 추령을 출발해 장군봉-연자봉-전망대휴게소-내장사&단풍터널-내장산국립공원 탐방안내소 코스이다. 초보자도 어렵지 않게 즐길 수 있는 '솔티슈엿길'은 내장산단풍생태공원-내장산조각공원-솔티마루길-솔티슈엿길-방문자센터-내장호둘레길-내장산위터파크로 이어진다.

두 코스 모두 오는 18일을 시작으로 25일, 27일, 28일, 30일 각 5회씩 운영된다. 예약 및 문의는 승우여행사 홈페이지(www.swtour.co.kr) 또는 유선(02-720-8311)을 이용하면 된다. 또한 이번 겨울 상품은 시와 스타셰프 이원일이 개발한 특화 먹거리를 맛볼 수 있다. 돼지고기와 콩, 버섯 등 정읍 최고의 식재료를 활용한 '버섯돈육갈'과 '등뼈버섯곰탕'. 돈육같은 매콤하면서도 깔끔하고, 버섯곰탕은 담백하고 고소한 국물이 일품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2012년생 청소년 무상교통 지원

군산시 거주 중고등학생 대상... 학교 밖 청소년도 신청 가능

2012년생 청소년(2025년 중학교 예비 입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포함)들의 군산시 무상교통 지원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16일 군산시는 2007년~2012년 출생했고 주민등록상 군산시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학교를 안 다니는 학교 밖 청소년 역시 신청할 수 있다.

교통카드 신청은 군산시 무상교통 누리집(https://freebus.gunsan.go.kr)을 통해 회원 가입하면 발급이 가능하다.

무상교통비는 군산지역 시내·마을버스 이용 요금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실제 버스를 이용한 교통비를 정산해 학생 본인 계좌로 지급해준다. 지원 비용은 월 최대 5만 원 한도이다.

단, ▲카드 수령 후 무상교통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카드등록을 완료하고 ▲버스 승하차시 전용 교통카드를 반드시 태그 해야 교통비

지원이 된다. 따라서 카드 수령 시 함께 동봉된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해보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교통행정과(063-454-3786-7)로 문의하면 된다.

중·고등학생(청소년) 무상교통 사업은 군산시 민선 8기 공약으로 ▲가계 부담 경감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 ▲대중교통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되었다.

2023년 11월 고등학생을 시작으로 진행된 이 사업은 지난해 9월 중학생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다.

2025년을 맞아 군산시는 이용자들의 불편 사항 경감과 사업의 편리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중에 이용 주체인 청소년과의 간담회를 통한 의견 수렴과 무상교통사업의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사업의 미비점을 보완 및 개선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현울 익산시장, 설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장애인시설·아동양육시설·노인요양시설 등 방문

정현울 익산시장이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사회복지시설 위문에 나섰다.

지난 16일 익산시에 따르면 정현울 시장은 사회복지시설 4곳을 방문해 종사자와 이용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격려했다.

이번 정 시장은 장애인시설인 '새소망간보호시설'을 시작으로 ▲아동양육시설 '이리보육원' ▲노인요양시설 '원광실버의집' ▲아동양육시설 '기독산애원'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설을 맞아 시설 생활인 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훈훈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

고자 마련됐다. 정시장은 시설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지 세심히 살피며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아울러 시설 생활인을 가족처럼 돌보고 있는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표하고 새해 인부 인사를 나눴다.

정현울 시장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외롭고 쓸쓸한 명절을 보내지 않도록 주위의 따뜻한 관심과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시민과 단체, 기관 등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 성과발표회 개최

2024년도 육성사업 추진성·2025년도 사업방향 제시·지역 혁신기관 간 협력 교류 강화

2024년도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 성과와 2025년도 사업방향 제시를 위한 성과발표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지난 16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번 발표회에서는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한 전북특별자치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및 군산대학교 총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 진행은 ▲연구개발특구 활성화 유공자 표창 ▲강소특구 우수성과 기업 표창 수여 ▲우수기업 및 기관에 대한 감사패 전달 ▲2024년에 지정된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 현판 수여 ▲강소특구 성과홍보 및 추진전략 ▲강소특구 혁신기관 협력 퍼포먼스 ▲수혜기업 홍보부스 참관 등으로 이뤄졌다.

군산 강소특구는 지난 2020년 특구

로 지정된 이후 기술핵심기관의 우수 기술을 발굴하고, 혁신기관과 협력연계하여 지역 특화산업의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지난 4년 동안 모든 평가지표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이며 성장을 이뤘다. 지금까지 연구소기업 설립 28건, 기술이전 180건, 신규창업 45건, 투자연계 475.91억 원을 달성했으며, 특구 내 입주기업 또한 200여 개로 증가하였다.

해외 수출 관련해서는 품리콤파티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서 5,000만불 계약성사를 이루는 한편, Value-up 기술 지원을 받은 디넥스트와 에이피솔루션이 베트남 수출 375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군산에 보급자리를

탄 스펀스엠텍이 과거로부터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되는 좋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러한 다년간의 성과와 실적을 인정받아 2024년에는 군산 강소특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한 '강소특구 연차평가'에서 최우수 특구로 선정되었다.

올해 군산시는 ▲특화 분야 수요 기반 유망기술 발굴 연계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 ▲기술창업 및 기업 단계별 맞춤형 성장지원 ▲지역 특화 분야 육성지원 등 4대 중점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기술-창업-성장이 선순환하는 지역 주도형 혁신성장 시스템 인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생활개선정읍시연합회, 안경순 신임 회장 취임

생활개선정읍시연합회(이하 정읍연합회)가 지난 15일 정읍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취임식 및 연시총회를 열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제16·17대 회장을 역임한 박정옥 회장의 헌신과 공로를 기리는 공로패 전달식이 진행됐으며, 18대 신임 회장으로 안경순 회장이 취임해 연합회를 새롭게 이끌게 됐다.

박정옥 회장은 이임사에서 "그동안의 노력과 열정을 바탕으로 새로운 회장님께서 연합회를 더욱 발전시키길 당부하며, 응원하며 앞으로도 계속 지원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안경순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회원들의 화합과 단결을 바탕으로 지역 농촌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지속



가능한 농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용관 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정읍연합회의 꾸준한 노력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 농업인들의 발전과 권익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돈 버는 농업·잘사는 농촌, 익산시가 앞장선다

익산시가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농촌지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올해 농촌지도사업에 참여할 농업인을 다음달 6일까지 모집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번 농촌지도사업은 ▲인력육성 ▲소득작물 등 8개 분야 총 59개 사업에 약 65억 6,000만 원을 투입한다.

중점 사업으로 청년농업인 선진농업 기술도입, 밀-콩 작부체계도입, 기후변화에 대응한 원예작물 안정생산사업 등 농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인구유입을 위해 귀농청년 맞춤형

아이디어 지원, 청년농업인 농자재 지원, 귀농인 소득사업 및 생산기반 지원 등의 사업도 진행된다.

신청대상은 해당 사업별 신청기준에 맞는 농업인, 농업인단체, 농업법인, 마을 단위로, 익산시청과 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서 사업내용을 확인해 농업기술센터 사업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현지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오는 2월 개최되는 농업신학 협동심의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익산사랑장학재단과 나눔 공간에 기부활동을 했거나 자원봉사자(1365 자원봉사실적), 수상자에 대해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한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체계적 도시 경관 관리... 전문가팀 재위촉

공공건축, 디자인, 경관조명 분야 전문가 자문... 지역 정체성 살린 도시공간 조성

정읍시가 도시 경관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공공건축, 공공디자인, 경관조명 분야의 전문가 4명을 총괄계획가로 재위촉했다.

시는 도시 경관의 체계적인 관리와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향상을 위해 총괄계획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번에 재위촉된 총괄계획가는 공공건축물 분야 2명, 공공디자인 분야 1명, 경관조명 분야 1명으로

이들은 전문성과 식견을 인정받아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활동을 이어가게 됐다. 총괄계획가 제도는 총사업비 3억 원 이상의 공공건축, 공공디자인, 경관조명 분야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준비 단계부터 추진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기획 및 자문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도시 경관의 통합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정읍만의 특색을 살린 조화로운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0년부터 운영되어 온 이 제도는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자문을 통해 정읍만의 정체성을 살리고 통일된 도시 경관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며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조화로운 도시 이미지를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김제시, 더 특별한 내일·기회도시만들것

신년하례회서 미래첨단산업·첨단농업·해양항만중심도시 등 10대 핵심 프로젝트 공약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16일 을사년 새해를 맞아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제상공회의소 설립 발기인회는 정성주 김제시장과 서백현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지역 도의원 및 시의원, 기업인, 언론인, 기관·사회단체장 등 200여 명이 초청한 가운데 2025년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특히, 올해는 김제시상공회의소 설립 발기인회가 처음으로 주관하는 행사로, 상공회의소 설립의 취지와 비전을 공유하며 지역 경제의 중심 역할을 다짐했다.

또, 참석자들은 새해 소원성취를 위한

뜻을 자르며 시가 전북권 4대 도시로 우뚝 서기를 기원했으며 아울러 각 기관·사회단체장들과 기업인들은 2025년 한 해의 번영과 건승을 기원하는 덕담과 인사말 건네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2025년은 민선 8기 3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성장의 과실이 시민들의 삶에 더 빨리 확산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아 부어야 하는 매우 중차대한 시기”라며, “참석하신 시민 모두의 격려와 응원속에, 온 마음을 기울이면 하늘을 감동시킨다는 일념통전(一念通天)의 자세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5년 시정 방향을 ‘더 특

별한 내일, 기회도시 김제’로 정하고 10대 핵심 프로젝트로 ▲다음 세대의 꿈을 실현하는 미래첨단산업도시 ▲시민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민생경제도시 ▲대한민국 최고의 첨단농업도시 ▲미래 신산업 거점, 새만금 해양항만중심도시 ▲누구나 살고싶고 안전한 명품힐링도시 ▲미래를 키우는 김제, 함께 누리는 교육복지도시 ▲김제만의 매력을 살린 문화체육관광도시 ▲청년이 꿈꾸고 정착하는 청년친화도시 ▲외국인주민과 동반성장하는 외국인친화도시 ▲시민과 함께 시민이 행복한 시민중심도시 만들기에 매진할 방침이다.

/김제=온봉기 기자



김제시, 올림픽 유치 기원 챌린지 첫 주자 정성주 김제시장, 2036 올림픽 유치 기원 피켓 챌린지 스타트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16일 2036 하계올림픽 전북유치 기원을 주제로, 정성주 김제시장이 첫 주자로 올림픽 개최지 선정을 기원하는 릴레이형 피켓 챌린지를 시작했다.

이날 정 시장은 “저를 시작으로 다양한 관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유치 기원 릴레이 챌린지로 유치 분위기를 높이고, 2월 유치대상지 선정 유체에 적극적인 관심과 시민의 의지를 이끌어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올림픽 유치 도전이 시작되고, 대시민 홍보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시내 주요지역에 올림픽 유치를 기원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시청직원 300여 명이 참여하는 유치 결의 퍼포먼스로, 유치활동에 힘을 보태왔다.

정 시장은 “저를 시작으로 다양한 관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유치 기원 릴레이 챌린지로 유치 분위기를 높이고, 2월 유치대상지 선정 유체에 적극적인 관심과 시민의 의지를 이끌어간다는 계획이다.”

/김제=온봉기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 김홍국 민간위원장과 새만금 현안 논의

부안군 권익현 군수는 지난 15일 서울 하림그룹 본사에서 김홍국 새만금유치위원회 민간위원장을 만나 부안지역 새만금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며 위원회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이날 면담은 올해 연말 새만금기본계획(MP) 재수립 결정을 앞두고,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의 산업단지 전환’을 위한 권익현 군수의 절박함과 의지를 김홍국 민간위원장에 설명하는 동시에 새만금위원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마

련했다. 권 군수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를 부안 앞바다 행정동력단지와의 그린수소등과 연계한 재생에너지 중심 산업단지로 전환해 지역간 개발 불균형을 해소하고, 탄소중립 시대를 국가적 차원에서 대비해야 한다”

며 “산업과 관광, 환경 분야의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해 부안군이 새만금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새만금위원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군, ‘농업 보조사업 서류 간소화’ 확대 시행

고창군이 지난해 지역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농업 보조사업 서류 간소화를 확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농업보조사업 서류 간소화 대상을 기존 44개 사업에서 47개 사업으로 늘리고, 지원 사업비를 194억원에서 201억원으로 증액했다.

특히, 간소화 범위를 일부 도비사업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해 농업인의 편의성을 한층 높였다. 이번 조치를 통해 농업인들이 더 효율적으로 보조사업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서류 간소화와 함께 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보조금 집행까지의 시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농업인들이 신청 절차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농업 중심 도시로서 선진 행정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백석초등학교, 학교숲 조성 협약 체결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2025년 학교숲 조성사업 대상학교로 선정된 백석초등학교와 지난 15일 학교숲 조성·관리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박원용 산림복지과장, 오경숙 백석초등학교장, 주상현 의원 등 관계자 7명이 참석해 학교 특성을 반영한 학교숲의 조성 및 활용, 보전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시는 지난 2010년부터 2024년까지

관내 57개 학교 중 총 24개 학교에 학교숲을 조성해 자연학습 교육의 장을 마련했으며, 올해 백석초교 1개소에 1억원의 예산으로 수목과 조화류를 식재하고 산책로 및 쉼터를 만들어 6월 내 학교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백석초등학교의 학교숲이 지역의 거점 녹지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학교숲을 조성하고 유지·관리하는데 협력해주시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함께여는 새로운 미래’ 청년정책 본격화

취업 지원사업·청년 두배적금·활력수당 등 지원...‘꿈 실현 할 수 있는 정책 실현 할 것’

고창군이 지역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청년정책을 추진한다.

16일 고창군에 따르면 ‘청년과 함께여는 고창의 새로운 미래’를 비전으로 주거, 일자리, 창업, 여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본격화한다. 먼저, 일자리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청년취업 지원사업 ▲전북청년활력수당 등이 진행중이다.

또 ▲전북청년 두배적금(청년자산 형성지원) ▲시군 청년혁신가 예비창업지원 등이 시행되고 있다.

특히,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지역 유입과 정착을 목표로 1년간 최대360만원을 지원하며, 현재 대상자를 모집 중이다.

또한, 청년 창업가에게 사업자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청년창업 패키지는 이달 중으로 3개소를 모집해 2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청년들이 직접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해 실질적인 의견을 반영한 정책 개발에 나선다.

이를 위해 청년정책협의체, 청년 간

담회, 정책 공모전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고창군은 이번 정책 시행을 통해 청년층이 머물고 싶은 지역, 더 나아가 돌아오고 싶은 고창을 만드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청년은 고창의 미래이자 우리 지역의 핵심 동력”이라며 “청년들이 고창에서 꿈을 키우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코레일관광개발 선정 가장 많이 간 여행지 ‘1위’

2024년 코레일관광개발서 운영, 80여개 여행상품 중 1위 쾌거

부안군이 코레일관광개발에서 가장 많이 간 2024년 여행지 ‘TOP 1위’에 선정됐다.

코레일관광개발에서는 2024년 전국 방방곳곳 80여개의 여행상품을 운영했는데, 부안군이 여행지 1위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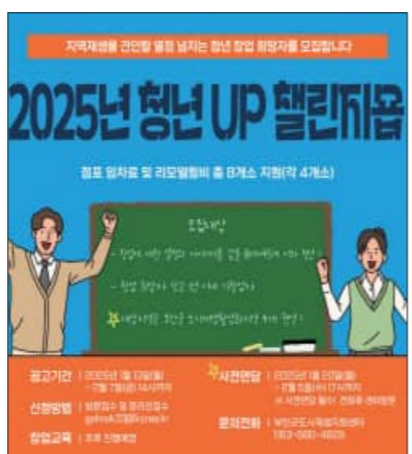
이번 결과는 코레일관광개발과 (재)부안군문화재단 상권활성화추진단이 지난 2023년부터 업무협약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안관광 여행상품을 시작 한지 2년만의 성과이다.

코레일관광개발 부안(부안노) 특권역에서는 청량리역에서 출발해 영등포, 수원, 평택, 천안, 서대전을 거쳐 익산역에 도착해 연계된 버스를 타고 부안 관

광체험 코스로 간다. 부안노(부안노)는 총 4개 코스다.

▲자연누리 1코스(채석강, 내소사) ▲로컬농부체험 2코스(오디수확체험, 직소폭포길) ▲로컬푸드체험 3코스(내소사, 청자박물관, 오디수확체험) ▲맛집탐방 4코스(줄포만노들빛정원, 슬지제빵소) 등 지역 명소와 농촌체험, 로컬푸드 및 부안 전통시장을 즐길 수 있도록 지역 특색을 살린 코스로 구성돼 있다.

권익현 군수는 “앞으로 더 많은 관광객들에게 세계적 아름다운 부안군 곳곳의 대표 관광지과 특색 있는 농촌 로컬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테마 여행상품을 제공해 관광 수요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군 장학재단, 지난해 장학금 3억5300만원...역대 최대

재단 설립 이후 최대 장학금 기탁 ‘지역인재양성 전폭적 지원’

고창군장학재단이 지난해 역대 최대 장학금 기탁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지역인재들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

16일 (재)고창군장학재단(이사장 심덕섭)에 따르면 지난해 장학금 모금액이 3억5300만원으로 기부자는 118명에 달한다.

이는 전년(2023년) 대비 60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1997년 장학재단 설립 이후 최대 금액이다.

재단은 “삼성전자 분양 확충, 1천만 원 광시대 개막 등 지역 자긍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이끌어 나갈 지역인재육성에 대한 관심도 더불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대학등록금 지원사업은 지난 2년간 총 241명에게 5억2157만원을 지급했다. 올해 3년차를 맞아 대학 1~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1인 최대 300만원의 등록금을 지원해 부모들의 부담을 덜



고, 타지에서 안정적인 대학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고교졸업 후 3년 이내 창업·취업한 대학미진학 학생들에게도 지역 인재 배출을 지원해 청년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고 있다.

심덕섭 이사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 더 많은 고창의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학사업과 양질의 교육지원을 통해 다방면에 능통한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청년들에 월세 등 주거비용 지원 나서

부안군은 청년들의 주거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2025년 청년 주거비용 지원사업 참여자를 내달 5일부터 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주거 취약 청년들에게 전세 임차보증금 이차 또는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연령은 19세부터 45세까지이고, 월세지원 소득요건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나 1인 가구인 경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까지 지원 가능하고, 지원 기간은 최대 4년으로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정된 사람은 월 최대 10만원씩 12개월간 주거비를 지원받으며, 지원금은 반기별로 지급신청 서류를 확인한 후 6월, 12월에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청년 주거비용 지원사업은 고향사랑기금으로 재원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주거비 걱정을 덜고 우리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전했다.

지원요건,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안=신상수 기자

부안군, 내달 7일까지 ‘청년 UP 챌린지쇼’ 참가자 모집

부안군은 ‘2025년 청년 UP 챌린지쇼’ 보조금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청년 UP 챌린지쇼’는 도시재생활성화구역 내 지역 현안에 발맞춰 컨텐츠를 발굴하고, 창업을 희망하는 창업자 또는 1년 이내 기창업자를 대상으로 임차료 및 리모델링비를 지원해 지역재생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2020년부터 청년 챌린지쇼를 통해 총 17개 팀 지원했으며, 지역 내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지원사업은 총 8개소(점포 임차료 및 리모델링비 각 4개소) 모집 예정이며, 신청자격은 창업에 대한 열정과 아이디어를 갖춘 18세~45세 이하 청년으로 부안군 로컬활성화를 위한 창업 희망자 또는 1년 이내 기창업자이다.

대상 지역은 부안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4개 권역(매화동류마을 활성화지역, 터미널·시장 활성화지역, 향교마을 활성화지역, 줄포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로 제한한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창업희망자에 한해서 지원되던 것을, 1년 이내 기창업자까지 대상을 확대 지원”하며, “경기 침체로 인해 힘들어하는 청년 창업자에게 희망이 되고, 어렵게 시작한 창업을 지속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학용품비 등 지원 확대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2025년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김제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법정 한부모 및 청소년한부모가정 자녀는 595명(초·중고 460명)이다.

시는 여성가족부의 2025년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인상 및 학용품비 지원 대상 확대에 발맞춰 미혼 모·부 등 저소득 법정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자녀 양육비 지원 금액을 자녀 1인당 현재 월 21만 원에서 월 25만 원으로 인상하고,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도 자녀 1인당 현재 월 35만 원에서 월 37만 원으로 인상해 지원하게 된다.

서효연 교육가족과장은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 및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선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남원시, 신규사업 발굴보고회 개최

성장 견인할 97개 신규사업 총사업비 1조 990억원 규모 발굴 민선8기 4년차 '새로운 남원, 달라진 남원' 위한 고도화 사업 발굴 집중

남원시가 16일 최경식 남원시장 주재로 부시장과 국소장, 전 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국가예산의 선제적 확보 대응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보고회를 개최했다.

남원시는 지난해 7월부터 전 부서가 시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기존 사업과 연계하고 이를 고도화할 수 있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발굴을 추진해 왔다.

시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기 추진사업과 연계성이 높은 사업 발굴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총사업비 1조 990억원 규모의 신규사업 97건을 발굴했으며, 이번

보고회를 통해 발굴 사업에 대한 부서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사업별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주요 발굴사업으로는 ▲KTXT남원역 세운 도시개발사업 투자선도지구 지정(총사업비 미정), ▲그린바이오소재 원료공급센터 구축(98억원),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160억원), ▲국립 전통 예술 Hi-Tech 복합 교육원 건립(총사업비 미정), ▲지리산 에코 캠프 조성(100억원), ▲남부권 드론MRO센터 구축(100억원), ▲남원 쌍교지구 우수저류지 설치사업(254억) 등이다.

남원시는 발굴사업에 대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사업 논리와 타당성을 보완하고 부처별 특성을 만들어 연초부터 부처를 조기 방문해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국회단계 미반영 된 주요예산 사업에 대해 정부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구 박희승 국회의원과 정치권과의 협력체계를 지속 유지해 대응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최경식 시장은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등 철저한 논리개발과 함께 지역 현안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신규사업 발굴을 내실있게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남원시는 지난해 전략적 국가예산 확보 대응을 추진한 결과 전년 대비 208억원이 증가한 1,655억원을 확보했으며, 공모사업도 총사업비 383억원이 증가한 2,403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시, 자매결연 아동·복지시설 방문 격려

위문품 전달, 온기 가득 명절 준비...군부대도 방문

남원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우리 주변의 이웃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지난 15일 자매결연 아동과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과일 등 격려 물품을 전하며 온정을 나눴다.

최경식 시장은 이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씩씩하게 지내고 있는 자매결연 학생을 방문해 격려물품을 전달하고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 또한 관내 노인요양 시설 및 정신요양 시설 등을 방문해 과일과 김부각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시설 내 어르신들과 복지시설 관계자들을 위문하고 격려했다.

또한 21일에는 35사단 백마여단과 남원순창 대대를 방문해 시민의 안전과 향토방위, 대민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군장병들을 위한 격려금을 전달해 감사의 뜻을 전할 예정이다.

최경식 시장은 "다음주부터 지급될 민생안전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 '맞춤형 농작업 도우미'...영세농 지원 강화

전담인력·장비 확충하고 수수료 대폭 낮춰...농촌 고령화 해소·영농비 부담 완화

순창군이 농작업 대행서비스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직영체제로 전환한 '맞춤형 농작업 대행과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4억 3천만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고, 농업 소외계층의 영농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이를 위한 전문 농작업 서비스 제공을 위해 트랙터를 포함한 23기종 36대의 농작업 기계를 확보하고, 숙련된 전담인력 8명을 채용해 전문성을 한층 강화했다.

농작업 대행 서비스의 주요 지원 대상은 밭작물 재배 면적이 5,000㎡ 이하 영세농 중 고령, 여성, 장애인 등이며 경운, 로터리, 비닐피복, 퇴비살포, 콩 탈곡 등 발생사 위주의 작업을 지원한다.

특히, 작업 수수료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 농가에 한해 관내 읍면 평균 작업 수수료의 최대 59%까지 감면된 요금을 적용해 영농비용 부담을 크게 낮출



순창군이 올해부터 직영 체제로 전환한 '맞춤형 농작업 대행과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본격 가동한다.

계획이다.

또한 군은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통해 콩대, 갯대, 고춧대 등 농민부산물을 무상으로 처리해 주는 서비스도 제공해 예정이다. 이는 부산물 소각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 하는 등 농업 환경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파쇄지원단 사업은 관내 농업인 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실제로,

농작업 대행 서비스는 최근 6년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146건(33ha)에 불과하던 작업실적이 2024년에는 1,440건(118ha)으로 약 10배 증가했으며, 특히 2024년에는 전년 대비 55%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자세한 작업 방법과 일정 등은 현장 확인을 통해 신청 농가와 조율한 후 실시하고 있다. /순창=박지현 기자

순창군, 설 명절 앞두고 공익직불금 40억 원 지급

순창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군비 기본형 공익직불금 40억원을 설 연휴 이전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직불금 지원은 2024년 국비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혜 대상자 중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및 연접 농지를 경작하는 7,076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규모는 총 6,192헥타르에 달하며, 제곱미터당 64.5원의 단가로 0.1~3.0헥타르 한도 내에서 면적별 차등 지원된다.

아울러, 군은 이미 지난해 12월 민

선 8기의 핵심 공약사업인 '농민기반 소득 지원 확대'의 일환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군비 확대 공익직불금 71억원을 지급 완료한 바 있다.

여기에 국비로 지원되는 농업·농촌 공익증진직불금 162억원과 전라북도 지원금인 논농업 환경 직불금 6억원도 함께 지급돼, 지역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소득 향상에 기여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군비 직불금 지급을 통해 가계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남원 복지안전 119' 앱 보급 업무 협약 체결

지역 취약계층·위기가구 신속 지원 스마트 플랫폼 도입...복지안전망 강화

남원시는 지난 16일 시민의 안전과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발굴·지원하기 위해 남원사회복지관, 남원시노인복지관, 지리산노인복지센터, 남원장기요양기관협회와 '남원 복지안전 119' 앱 보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각 기관이 상호 협력해 앱 보급과 사용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과 위기가구를 신속히 발굴하고 지원해 지역 복지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남원 복지안전 119' 앱은 ▲긴급구

조 119 ▲도움 요청 ▲안전 신고 ▲안전 지도 ▲안전 수칙 등 5가지 주요 기능을 제공하며,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 복지·안전 플랫폼이다.

'긴급구조 119' 기능은 위급 상황 발생 시 '119' 자동 전화 연결과 동시에 비상 연락망(보호자, 지인 등)에 도움 요청 문자를 발송해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도움 요청' 기능은 행정복지센

터 방문이 어려운 위기가구가 손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지역 내 위험 장소, 학대 및 자살 위험 등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 '안전 신고' 기능, 대상자 주변의 공공기관·병원·무더위 쉼터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안전 지도', 위험 및 재난 상황 대응을 돕는 '안전 수칙' 동영상 재생 기능을 통해 시민 안전을 더욱 강화한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 로컬 크리에이터 창업베이스 프로그램 열어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가 주최하는 완주 로컬크리에이터 그라운드 창업베이스 프로그램이 16일 완주문예회관에서 열렸다.

완주 로컬크리에이터 그라운드는 완주 크리에이터들의 창의성과 네트워킹의 장이자 플랫폼으로 이번 행사는 로컬 크리에이터들에게 사업화와 네트워킹의 기회를 제공하며,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는 데 중점을 뒀다.

행사는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실행 가능한 사업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했다. 참가자들은 전문가 강연과 컨설팅을 통해 비즈니스 설계, 사업계획서 작성, 마케팅 전

략 등 실질적인 노하우를 배울 수 있었다. 또한, 향후 제공될 사업화 지원금 신청을 위한 첫 단계로서 사업계획서 작성 가이드가 진행됐다.

이번 창업베이스 프로그램은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 크리에이터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네트워크를 확장할 기회를 제공한다.

참가자들은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와 협력해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인 직업 경험을 쌓는다. 이번 창업베이스 프로그램을 통해 도출된 사업 아이디어와 결과물들은 향후 완주 지역의 창의적 프로젝트에 반영될 예정이다. /완주=김명곤 기자

완주군, 청사서 설맞이 지역 제품 직거래장터 열어

완주군이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완주군청 1층 로비에서 완주상품 직거래장터를 연다.

이번 직거래장터는 지난해에 문을 연 완주군 온라인 직거래장터 완주물 홍보와 함께 소비자들에게 질 좋고 저렴한 완주산 제품으로 명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마련된다.

직거래장터에는 완주군 직영 온라인 쇼핑몰 완주물에 입점한 대표상품과 완주군 로컬푸드협동조합, 완주군 농업인 가공센터, 삼례시장 청년몰의 30여 개 업체가 참여해 100여 개의 제품

을 선보일 예정이다.

직거래장터 이외에도 완주물에서는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17개 업체의 36여 개의 제품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구매 시 무료배송 혜택 이외에도 행사 기간에 행사 상품을 포함한 구매를 가장 많이 한 우수고객을 선정해 완주물에서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도 지급한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직거래장터와 완주물 할인 행사를 통해 주민들과 소비자들이 품질 좋은 지역 제품으로 풍성한 명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완주군, 만경강 생태관광자원 개발·파크골프장 조성

완주군은 만경강을 중심으로 한 생태관광자원을 개발해 관광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동상면은 대야·동상지구와 만경강 발원생을 개발하고, 고산면은 만경강 파크골프장, 세심정 수변공원 조성으로 지역 활력을 도모한다는 목표다.

16일 동상면을 찾은 유희태 군수는 "동상 특화발전을 제1과제로 역점 추진하겠다"며 대야·동상지구에 총사업비 55억 원을 투입해 관광자원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올해 대야호천명대를 리모델링하고, 낭만쉼터와 산책로 조성, 농특산물 판매센터를 개관키로 했다.

또한, 연내 준공을 목표로 만경강 발원생 일원에 생태탐방로, 생태숲길,

생태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고산면은 18홀의 만경강 파크골프장을 조성한다. 주차장과 화장실 등 편의시설도 들어선다.

세심정 수변공원과 자전거스태이션 조성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현재 시설 계획 용역을 추진 중으로 쉼터, 갤러리, 스탠드, 횡포길 조성이 계획되고 있다.

또한, 고산자연휴양림과 완주전통문화공원의 운영이 강화된다. 고산자연휴양림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가 이관돼 전문적이고, 체계적 운영을 도모한다. 완주전통문화공원은 체험 및 숙박시설과 지난해 조성된 '만발길' 좋은 길'을 연계한 관광 마케팅을 강화한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생 모집...이달 31일까지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주)에서 신규농업인 및 작목전환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 및 영농기술 전수가 가능하도록 이달 31일까지 2025년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생을 모집한다.

올해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연수생 모집대상은 40세미만 청장년층이거나 남원시 농촌지역으로 이주 5년 이내 농업인 또는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인 시민뿐 아니라 기존작목에서 새로운 작목으로 변경하거나 변경 예정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

특히, 농식품부 2025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자는 가산점을 부여하고 남원형 신규농업인 멘토멘티 사업으로 새로운 작목 재배를 시도하시는 농업인과 선도농가를 연결해 새로운 영농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현장실습 교육 연수생은 영농교육 이수 시간, 영농규모, 신청연령, 현장실습교육 계획 등을 서류 및 현지조사를 통해 심사 선정한 후 연수생 선정 후 연수생에게 적합한 선도농가를 선정하고 체계적인 작목재배 실습교육과 농업정보 등을 1대1로 받을 수 있도록 연수생과 선도농가에게 교육지원비를 지원한다.

교육 신청은 남원시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063-620-8013) 또는 각 읍·면·직할 농민상담소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연계 독서교실 성료



완주군립 중앙도서관이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겨울 독서교실 '겨울아침 자!'를 성황리에 마쳤다.

16일 완주군은 최근 3일간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과 연계해 사서와 함께 주제에 맞는 책을 읽고 토론과 독후활동을 하는 독서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선정한 '숲속 사자관에 온 판지', '치킨마스크', '내가 가장 듣고 싶은 말' 3권을 통해 가족, 친구,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자신이 듣고 싶은 말과 친구에게 해주고 싶은 말(칭찬, 장점, 긍정적인 말) 등을 적어 함께 만든 나무에 글씨 열매(칭찬, 장점 등을 적은 종이)를 붙이며 한 그루의 풍성한 나무를 만들어 냈다.

수업에 참여한 학생 중 수업 내용에 대한 이해도, 적극적인 참여, 협동, 출석률을 기준으로 3명이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을 수여받고, 18명이 수료증을 수여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순창군은 오는 20일부터 27일까지 설 연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

점검반은 설 연휴 전까지 오염물질 배출 우려가 있는 사업장과 하천 방류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농성활동을 펼친다. 특히 상수원 수계와 농공단지 주변 등 오염 취약지역의 하천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간 가동중단 등으로 인해 환경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을 집중점검해 오염물질 처리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휴가 끝난 후 정산 가동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이 취약한 설 연휴 기간 오염물질 불법 배출이 우려돼 이번 특별점검을 마련했다"면서 "폐수배출시설 운영 사업장에서는 시설 자율점검을 통해 배출시설과 방지사설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진안군,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참여자 선착순 모집

진안군은 오는 3월부터 시작되는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는 스마트폰 앱(APP)과 스마트밴드(활동량계)를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다. 24주 과정으로 진행되며 간호사, 코디네이터, 영양사, 운동처방사로 구성된 4명의 전문 인력의 상시 모니터링과 상담 및 검진을 통해 만성질환 예방과 지역주민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지원하게 된다. 모집 대상은 20~50대의 진안군민 또는 진안군 소재 직장인이며 내달 7일까지 선착순으로 50명을 모집한다. 신청자들은 내달 중 건강검진 실시 이후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다. 인원 초과 시 혈압, 혈당, 복부둘레,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중 건강위험요인 1가지 이상을 가지고 있는 대상을 우선순위로 선정할 예정이다. (단, 질환자나 약물 복용자, 전년도 참여자는 제외)

참여 신청은 진안군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전담팀으로 전화(063-430-8545) 또는 보건소 1층 모바일 헬스케어실에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진안군보건소 관계자는 “모바일 헬스케어는 바쁜 일상으로 인해 소홀해질 수 있는 개인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 시키고 있다”며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임실군, 자동차세 1월 연납 신청시 5%할인

임실군이 자동차세를 1월 일시 납부하면 연간 세액을 할인받는 연납 신청을 이달 31일까지 받는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자동차세를 매년 납부해야 하며, 자동차세는 일반적으로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납부하지만,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1년에 한 번,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하고 일부 자동차세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선납할 경우 세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오는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이므로 실질적으로 연세액의 4.57% 할인이 적용된다.

또한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남은 달에 대해서만 공제해 주므로 1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할인 혜택이 크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임실군청 재무과(063-640-2183) 및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전화 문의하면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임실=한병열 기자

진안군, 내달 3일까지 원예분야 신기술 시범사업 신청

진안군은 오는 20일에서 내달 3일까지 '2025년 원예분야 신기술 시범사업' 신청을 받는다.

올해 총 16개사업 34개소로 총사업비는 200여억원이다.

주요 사업은 ▲시설원예분야 시설토경관계 자동제어 시범 외 4개 사업 ▲원예작물분야 병해충방제 토양소독기 신기술 시범 외 2개 사업 ▲스마트팜분야 스마트 방제로봇 시범 외 3개 사업 ▲과수 분야 무인방제 과수 종합관리 시범 외 3개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진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원예작목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로 세부 사업내용은 진안군청 누리집 농업기술센터 공지 사항에 게시된 내용을 참조하면 된다.

노급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원예작물 신기술 시범사업을 통해 진안군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돈 버는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양궁의메카임실군,명궁육성전폭지원

심 민 임실 군수, 군 양궁부에 투자 아낌없이...5월 국제양궁장 전지훈련센터 준공도

임실군 오수면에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국제양궁장이 한국 양궁의 메카로 떠오르며,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군은 국제양궁장이 위치한 임실군 오수면에 지난 2021년을 시작으로 총사업비 52억8400만원을 투입해 지상 4층, 26실 52명용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전북특별자치도 국제양궁장 전지훈련센터가 건립 중인 가운데 올해 5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 시설이 완공되면 선수 및 내방객을 위한 체육시설 인프라가 확충되고, 선수의 경기력 향상 및 국제적 양궁 메카로 한 차원 더 발돋움 하는 계기가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은 심 민 군수의 각별한 양궁에 대한



임실군 오수면에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국제양궁장이 한국 양궁의 메카로 떠오르며,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관심에 힘입어 올해도 양궁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양궁 발전과 시설투자에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모집

후계농업경영인, 최대 5억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월 90에서 110만원 지원

장수군은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유망한 농업경영 인력을 육성하고자 오는 2월 5일까지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대상자는 만18세 이상 만50세 미만의 독립경영 10년 미만(독립경영 예정자 포함)인 자로, 선정 후 5년까지 세대당 최대 5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책자금은 연1.5%의 고정금리,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기준이며 농지 구입, 시설 설치, 농업용 화물자동차 구입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는 만18세 이상 만40세 미만(25년 사업기준 1985.1.1~ 2007.12.31 출생자)의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인 자로, 선정된 청년농업인 영농능력에 따라 최대 3년간 매월 90만원에서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받게 된다. 또한 정책자금이 필요한 경우 후계농업경영인과 같은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지원사업들은 우리 군의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다”며 “열정있는 후계농업경영인, 청년농업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농림사업 정보시스템(https://uni.agrix.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후계농업경영인은 서류평가, 청년농업인은 서류평가와 면

접 평가를 거친 후 4월에 최종 선발대상자가 결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수=최진수 기자



무주군, 농업 역량 강화...반딧불 농업대학 운영

사과농업수박과 총120명 모집, 재배·이론부터 농기계 안전 사용 등 공통 과정까지

무주군이 농업경쟁력 강화와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해 2025년도 반딧불 농업대학을 운영한다.

올해는 사과과 심화 과정을 비롯해 농업마케팅과와 수박과 등 총 3개 과정이 개설됐으며 과별로 40명씩 총 120명을 모집한다.

대상은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과 군민으로 오는 2월 5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과 농

업인상담소, 농업지원과 강소농육성팀으로 방문·접수하거나 담당자 전자메일(muju1975@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내용은 ▲재배 기술 이론 및 실습 ▲병해충 관리 및 예방 기술 ▲농업 관련 마케팅 및 브랜딩 전략 ▲현장학습 등 4개로 구성되며 ▲농기계 안전 사용 및 농작업 안전보건 교육 등은 공통 과정이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황

재창 과장은 “그동안 16기 34개 과정을 통해 1,916명을 배출하며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대응하고 소득증대 등 실질적 이익을 창출하는 토대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라며 “올해는 실제 영농 능력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설문조사도 진행해서 수강생들의 생생한 의견을 향후 농업인 교육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주=최희호 기자

전춘성 진안군수, 민심 청취 대장정 마무리

“민생안정 지원금을 전 군민에게 신속히 지급하고 민생안정대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2025년 읍·면 연초방문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민심을 듣고 민생을 살리겠습니다”를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번 방문에서는 민생안정 대책을 균형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전 군수는 “지난해 연말 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의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으로 모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민생안정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민생안정 대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해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 군수는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의 위대함과 슬기로움이 있어,



이 어려움도 잘 극복해 내리라 믿는다”며 “뿌리가 튼튼해야 가지가 무성하다는 근고지영(根固枝榮)의 자세로 군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진안군을 지탱하는 뿌리는 군민이다”라며 “올 한해 군민 한분 한분의 삶의 미래를 높이고 지속 발전 가능한 진안의 미래를 위해 더 과감하게, 더 역동적으로 군정을 펼치겠다”고 설명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2025 최북미술관, 첫 번째 기획전시 열어

'소장품展', 기증·관리전환 통해 수집한 작품 전시

무주군이 새해를 맞아 최북미술관의 첫 번째 기획전시회를 연다고 밝혔다.

내달 23일까지 개최될 '2025. 최북미술관 소장품展' 그동안 미술관에서 기증과 관리전환을 통해 수집한 작품을 전시하는 것으로, 한 국화와 서양화, 조각, 공예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과 만날 수 있다.

이일순, 이봉금 작가가 각각 다른 재료와 표현으로 완성한 수묵화와 유화 작품을 통해 '뱀'의 상징성과 의미를 감상해 볼 수 있으며 무주의 자연을 유화로 옮긴 박천복 작가의 '고향 실경'과 이부안 작가의 '무주의 바다'에서는 평온하고 아름다운 풍경이 기다리고 있다.

장영에 작가는 푸른 장미꽃을 통해 활짝 피어나는 꽃의 운이 무주에 지속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으며 이 밖에도 유대수, 표인부, 박승경, 김영민, 김기철, 김승호, 김시오, 홍성훈, 나운재, 박찬용 작가의 작품들도 관람할 수 있다.

무주최북미술관 양정은 학예사는 “소장품 수집은 미술관의 역할 중 하나로 미술품의 보존과 전시를 통해 미래 가치가 될 작품들을 재 발견하고 있다”라며 “무주최북미술관이 발견한 보석같은 작품들을 함께 보시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무주=최희호 기자

임실군의회 정일운 위원, 대리마을 주민 감사패 수상

정일운 임실군의회의원은 지난 11일 신평면 대리마을 총회에서 군과 신평면 대리마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리마을 주민들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정 의원은 군민을 가족처럼 섬기며 군민과 소통하고 군민의 작은 소리도 경청하며 현장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군 발전에 기여했으며, 특히 대리마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마을주민들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하게 됐다.

또한 지난해 임실군공무원노동조합

에서 공직자가 의원께 드리는 '존경과 신뢰받는 임실군의회 의원상'을 비롯해,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 '대상', 지방의정대상 '장려상', 양성평등정책대상 의정부문에서 '여성신문&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상'을 수상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일운 의원은 “항상 처음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도 군민을 위해 현장에서 열심히 더 잘하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진안 학동마을, 얼음 녹을 때까지 얼음썰매장 운영한다

진안군 정천면 학동마을에서 17일(금)부터 얼음이 녹을 때까지 얼음썰매장과 겨울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학동마을 계곡은 여름 휴양지로도 유명하지만 매년 얼음이 어는 천연 썰매장이다.

이번 얼음썰매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한다.

얼음 썰매 타기(입장료 3천원)와 추억의 달고나 만들기, 군밤 구워 먹기, 쫄면 구워 먹기 등 유료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또한 학동마을 부녀회에서 운영하는 식당을 활용해 어묵, 떡볶이, 라면, 김밥, 우동 등 먹거리도 판매한다.

이번 얼음썰매장 개장과 겨울 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진안고원 촌스

런 마을여행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비수기인 겨울철 마을 자원을 활용해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아이들에게는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학동마을만의 겨울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다.

최명근 학동마을 이장은 “이번 겨울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학동마을만의 활기차고 생기 넘치는 마을 이미지 구축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남은 겨울을 학동마을에서 아이들과 어른들이 다 함께 즐기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방문 전 썰매장 운영 확인은 필수이며 문의는 063-432-3337로 하면 된다.

/진안=전길빈 기자

무주군, 복지 공동체 실현...사업공유회 개최

무주군사회복지협의회 사업공유회가 지난 16일 무주읍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무주군 사회복지 발전 방향과 사업 계획을 공유하고 지역 내 사회복지인들이 교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는 취지에서 추진된 것으로,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와 관계 공무원, 황인홍 무주군수와 오광석 무주군의 회 의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 황인홍 무주군수는 “올해 우리 군은 모두가 누리는 무주다운 복지 공동체 실현에 집중할 것”이라

며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위기기구가 발굴과 장애인·어르신 복지서비스 확대, 아동들의 권리와 복지 증진, 저소득 주민들의 기초생활 보장에 힘써 나가자”라고 말했다.

이에 이규평 무주군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은 “올해도 무주군 복지 증진과 사각지대 해소 위해 협의회가 발 벗고 나설 것”이라며 “각 시설과 단체,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군민 모두가 살기 좋은 복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최희호 기자



**고창 부안면 농가주부모임
하지민 회장, 11년째 고추장 기부**

고창군 부안면 하지민 농가주부모임 회장이 지난 16일 부안면사무소를 찾아 관내 어르신들께 전달해 달라며 순수 만든 고추장 70통(25kg)을 기부했다.
하지민 회장은 11년째 수제 고추장을 기부하고 있으며, 지역에서 각종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를 향한 선행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전기홍 부안면장은 “이웃을 위해 직접 담근 고추장을 매년 전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수제 고추장은 꼭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함께 전달하겠습니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국립군산대 ‘있다’, 라오스국립대 방문

국립군산대 있다 해외봉사단-라오스국립대학, 협력 방안 논의...주 라오스 대한민국 대사관 초청 받기도

국립군산대학교 ‘있다’ 해외봉사단(단장 오연풍)은 지난 15일 오전, 라오스국립대학교 솔리데스 키오 부알라페스 부총장 및 한국 어학과장 등 관계자들과 만나 양교 간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라오스국립대학교 한국어학과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외봉사 활성화 및 한국 문화 교류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을 도모했다.
오후에는 주 라오스 대한민국 대사관의 초청을 받아 안전 교육



국립군산대학교 ‘있다’ 해외봉사단은 지난 15일, 라오스국립대학교 솔리데스 키오 부알라페스 관계자들과 양교 간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과 라오스 국가와 문화에 대한 소개 시간을 가졌다.
이번 해외봉사 프로젝트에 참여한 단원 27명은 지난 13일부터 오는 24일까지 10박 12일 동안 라오스(동막카이초등학교, 비엔티안 특수학교, 라오스국립대학교)에서 교육 봉사 및 SDGs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라오스국립대학교 재학생 8명이 연합봉사에 참여해 대학 간 교류 및 봉사의 의미를 더욱 심화하고 있다.
/군산=지승길 기자

**임실군 출신 미용사, 고향 어르신들께
명절 맞이 미용 봉사**

임실군 윤암면 사양마을 출신 박옥례 씨(만 62세)가 명절을 맞아 고향인 사양리 마을회관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 커트 서비스를 제공했다.
올해로 32년 경력의 베테랑 미용사인 박옥례 씨는 중간중간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고 대화를 나누며,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박옥례 씨는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아 한 가족과도 다름없이 지냈던 고향 마을 어르신들에게 작은 기쁨을 드릴 수 있어 행복하다”고 전했다.
봉사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평소 미용실 가기가 부담스러웠는데, 이렇게 찾아와주시니 정말 감사하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김규현 윤암면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의 실천으로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시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주)삼화건설사, 전주시에 성금 1000만원 전해...이웃 위한 기부 동참

2020년부터 매년 기부...혹한기 추위 속 복지사각지대 소외된 이웃들 위해 사용 예정

(주)삼화건설사(대표 윤장환)는 16일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해 달라며 전주시에 성금 1000만 원을 기부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전주시복지재단을 통해 추워진 날씨 속에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윤장환 (주)삼화건설사 대표는 지난 2020년부터 매년 ▲사회복지단체 지원 ▲집중호우 피해 지원 ▲전주함께라면 기부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하며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에 앞장서왔다. 현재까지 이렇게 기부한 성금만 6900만 원에 달한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값진 나눔을 꾸준히 실천해주신 (주)삼화건설사 윤장환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체 지원 ▲집중호우 피해 지원 ▲전주함께라면 기부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하며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에 앞장서왔다. 현재까지 이렇게 기부한 성금만 6900만 원에 달한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값진 나눔을 꾸준히 실천해주신 (주)삼화건설사 윤장환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유)전북가설 대표, 남원시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 쾌척**

지난 13일, ‘남원 사랑 명예의 전당’ 제막식을 찾은 운영권 (유)전북가설 대표가 2년 연속 남원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을 전달해 기부 총액 1천만 원을 달성해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됐다.
남원시 주생면 출신으로 전주에서 건축자재 제조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권 대표는 “제막식 때 고향사랑기부금 활용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라며, “기부금이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투명하고 의미있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고 꾸준히 기부하기로 다짐했다. 기부금이 남원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남원시 관계자는 “보내주신 소중한 기부금은 남원시 미래주역인 청소년들의 육성과 보호에 사용돼 남원 지역발전의 디딤돌을 잘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2,000만원까지 기부하고 세액공제(10만원까지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와 답례품(기부금 30% 이내) 혜택을 받는 제도이다.
남원시는 기부자가 특정사업을 선택해 기부하는 지정기부제를 도입해 ‘2026년 남원 인재학당 기자재 구입 지원’을 목표로 모금에 나설 예정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한돈협회 김제지부, 어려운 이웃 위한 한돈 400kg 기부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사)대한한돈협회 김제지부(지부장 김락기)가 지난 15일 주변의 어려운 아동 및 취약계층에게 전달해 달라며 한돈 400kg(250만원 상당)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은 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동들이 많은 드림스타트,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와 다문화가정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사)대한한돈협회 김제지부는 수년간 꾸준히 지역사회 공헌활동

을 통해 주민들과 연대감을 높이고 있으며,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매년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고 계신 대한한돈협회 김제지부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탁된 물품은 따뜻한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소중히 전달하겠습니다”고 전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임규래 씨 가족, 21년째 적십자사에 기부금 전달

21년째 꾸준히 기부를 실천하고 있는 임규래씨와 그의 손자 권순범(기전중 1), 유경곤(하가초 5)이 올해도 돼지저금통을 가지고 대한적십자사 전북특자도지사사를 찾았다.
임규래씨는 “21년 전, 손주들 손을 잡고 저금통 기부를 시작한 게 이제는 매년 가족행사가 됐다”며, “멋모르고 할아버지 손잡고 오던 아이들이 이제는 먼저 기부하러 갈 때가 되지 않았냐고 묻는다. 나

눔의 기쁨을 안다는 게 너무 대견하다”고 말했다.
권순범 학생은 “올해도 열심히 저금해서 내년에 또 방문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임규래씨는 1974년부터 52년간 적십자 봉사원으로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고 있으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전북협의회장, 상임위원을 역임했고 현재는 전국대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준호 기자

**정숙가든, 완주군 취약계층에
설맞이 공탕 200인분 기탁**

완주군 이서면 소재 정숙가든(대표 안정숙)이 16일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공탕 200인분을 전달하며 온정을 나눴다.
약 400만 원 상당으로 이서면 맞춤형복지팀과 홀몸노인 생활지원사들이 저소득 홀몸 어르신 및 중장년, 한부모 가정, 장애인 등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해 전달할 예정이다.
안정숙 정숙가든 대표는 “준비한 공탕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잘 전달돼 따뜻한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귀순 이서면장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립니다”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해 복지사각지대 없는 이서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숙가든은 이서면에 위치한 한식 전문 식당으로 지난 2020년부터 6년째 해마다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꾸준히 선정을 이어오고 있다.
/완주=김명곤기자



〈一事一言〉



행복했다는 윤석열과 이상민의 심뽀(1)

김태형
심리연구소 '함께' 소장

한국인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 혹은 덕담을 주고받으며 새해를 맞이한다. 복을 많이 받으라는 말에는 당신이 행복하기를 기원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런 인사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이다. 즉 행복은 그야말로 최종적인 삶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윤석열은 내란 실패 후 발표한 12월 14일의 대국민 담화에서 "이제, 고되지만 행복했고 힘들었지만 보람찼던 그 여정을, 잠시 멈추게 됐습니다"라고 말했다. 또 "나는 대통령 놀이가 정말 즐겁고 행복했어요"라는 말 같지도 않은 말에 국민들은 엄청난 분노를 느꼈을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만이 아니라 그의 최측근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사퇴하면서 그와 비슷한 말을 주절거렸다. 내란 사태 여파로 탄핵 위기에 몰리자 12월 8일에 자진사퇴한 이상민은 부처 내부망에 올린 이문사에서 "모든 순간이 정말 행복했다"고 말했다.

윤석열은 대통령 놀이 덕분에 행복했는지 몰라도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그가 대통령이였기에 끔찍한 불행에 강요 당해야만 했다. 이상민은 모든 순간이 행복했는지 몰라도 그로 인해 행정안전부의 공무원들이나 국민들은 불행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다음과 같은 의문이 떠오른다.

인류가 행복을 인생의 최고 목적으로 꼽고 행복추구권을 보편적 권리로 인정해 온 것은 누군가의 행복이 타인들을 불행하게 만들지 않는다고 믿어서다. 다시 말하면 행복은 본질적으로 친사회

적이어서 나의 행복은 타인의 행복에 도움이 되지 그 반대일 수 없다고 믿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윤석열과 이상민은 자신들이 행복했다고 생각했던 것일까? 윤석열과 이상민이 자리에서 쫓겨나며 행복 운운한 것은 그들이 쾌락주의적 행복론을 믿고 있어서다. 쾌락주의의 행복론이란 쾌락의 증가와 고통의 회피를 행복으로 보는 행복론이다. 한마디로 쾌락이 곧 행복이라는 주장이다.

쾌락주의적 행복론과 금욕주의 행복론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양대 행복론이었다. 종교가 우세했던 시기, 중세봉건제 시기의 이윤추구 욕망과 잘 어울리는 행복론이 주류 행복론이었다.

그러나 자본주의 시대 이후부터는 금욕주의 행복론은 변방으로 물러나고 쾌락주의 행복론이 주류 행복론으로 부상했다. 그것은 쾌락주의 행복론이 자본주의 사회의 지배계급인 자본가계급의 이윤추구 욕망과 잘 어울리는 행복론이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쾌락은 소비로 연결된다.

예를 들어 음식을 통해 쾌락을 느끼고 싶으면 외식을 하거나 식료품을 구매해야 하고 영화를 통해 쾌락을 느끼고 싶으면 극장에 가거나 OTT 이용권 등을 구매해야 한다. 쾌락주의 행복론이 유행하면 할수록 소비가 늘어난다는 것은 쾌락주의 행복론과 자본주의 제도가 잘떡궁합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쾌락주의 행복론이 제안하는 행복 사회의 비결은 너무나 간단하다. 모두가 자기만의 쾌락을 열

심히 추구하면 된다! 쾌락주의 행복론의 행복 비법은 한때 코카콜라 회사가 전개했던 '오픈 해피니스(Open Happiness)' 캠페인에서 명쾌하게 드러난다. 코카콜라 회사는 그들의 웹사이트에서 행복을 쟁취하는 요령을 다음과 같이 알려주고 있다.

"진정한 행복의 탐구는 실제로는 탐구라고 할 것도 없다. 그것은 결정이요 선택이다. 그러니 한 순간도 더 기다릴 것이 없다. 얼음처럼 차가운 코카콜라의 뚜껑을 따고서 행복을 선택하라!" (마이크 비킹, 『그들은 왜 더 행복할까』, 2018, 마일스톤, 58쪽)

"행복이 별 거냐? 코카콜라 마실 때의 그 짜릿한 쾌감이 바로 행복이야! 그러나 괜히 행복이 뭔지 탐구하지 말고 코카콜라나 사서 마셔"라는 쾌락주의 행복론의 조언을 따르면 과연 행복해질까?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당연히 그렇지 않다. (참고로 자본에 충실한 미국 심리학은 쾌락주의 행복론을 열심히 설파하는 일등 공신 중의 하나이고 한때 한국에서 유행했던 소확행 열풍 역시 일종의 쾌락주의적 행복론이라고 할 수 있다.)

쾌락주의적 행복론을 신봉하는 윤석열과 이상민은 대통령과 장관 자리를 사유화하면서 마음껏 쾌락을 추구했고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자리에서 쫓겨나면서 "나는 정말 행복했노라"고 주절거렸던 것이다.

쾌락주의 행복론은 가짜 행복론이다. 따라서 그것을 믿는 사람이 누리는 행복은 참된 행복이 아닌 가짜 행복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것은 행복이 아닌 단순한 쾌

락이나 쾌감일 뿐이다. 쾌락주의적 행복론은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그것이 쾌락의 질을 따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쾌락이나 쾌감을 곧 행복으로 이해하는 쾌락주의 행복론에 의하면 윤석열과 이상민은 열심히 행복을 추구한 사람들이다. 윤석열은 국가의 최고권력을 악용해서 쾌락을 느꼈을 테니 자신이 행복하다고 믿었을 것이다. 이상민 역시 윤석열에게 충성을 바치고 그 대가로 떡고물과 귀여움을 받으면서 쾌락을 느꼈을 테니 자신이 행복했다고 믿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내란 시도는 자신의 행복을 완성하기 위해 단행한 거사라고 할 수 있다. 비상계엄을 선포해 자신을 반대했던 사람들을 다 잡아들여 고문하고 처단하는 것이 그에게 엄청난 쾌락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계속)

본 칼럼은 시민언론 만들레에 기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과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설

고교 무상교육, 국민과의 약속 지켜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심각한 실책이다.

이는 민생을 외면하고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을 무너뜨리는 처사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위다. 교육은 헌법이 보장한 공공성과 보편성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기본적 책무다.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교육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고교 무상교육은 단순한 예산 항목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투자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은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철저히 외면하고 국비 지원 예산을 99.4% 삭감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무책임한 처사다.

이번 결정은 지자체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미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가 이러한 부담을 감당해야 한다면 필수 복지 및 인프라 사업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고 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진다. 또한 교육의 평등성이 훼손되고 지역 격차가 심화될 것이 불 보듯 뻀하다. 이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교육 정책을 지방에 전가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로, 국가의 기본적 책무를 방기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단순히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이는 교육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초석이다. 역대 정부가 공멸어 완성한 초·중·고 무상교육 체계는 국민적 합의

의 산물이며 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현 정부의 책무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의 이번 결정은 이러한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교육을 정치적 도구로 삼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여줬다.

특히 이번 결정은 역대급 세수 결손에도 불구하고 국가 재정 운영의 실패를 지자체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태의 단면을 보여준다. 교육은 민생의 기동이자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다. 이를 외면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와 기대를 철저히 배신하는 행위다. 정부가 국가 재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이번 결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고교 무상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투자다. 정부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 정책에 적극 나서야 한다. 최 권한대행의 이번 행태는 국민의 삶과 교육의 공공성을 철저히 외면한 처사로, 우리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전 정부가 완성한 초·중·고 무상교육 체계를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것은 단순히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다.

이는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다.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국비 지원 연장 법안을 재검토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우리는 국민의 삶과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다. 최 권한대행의 이번 무책임한 결정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과 교육의 미래를 위한 투쟁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금요시선

일출/송도정태천

잔뜩 기대하고 일찍 일출 명소에 갔는데 못 보는 경우도 있고

평범한 일상속에서 예기치 않은 아침에 일출을 보기도 하고

해가 늦잠 자느라 늦게 일어난 날에는 대낮에 보기도 한다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씨투에스금융디자인 대표이사
시집 3권 발간
CHEZ NOUS 301과 필컬극슈, 여백의미
(에스24에서 구입가능)

독자광장

겨울철 빙판길 낙상사고 주의 당부



도로 결빙현상으로 발생하기 쉬운 빙판길 낙상사고를 막기 위해 보행자 낙상사고 예방 및 안전을 당부드린다.

겨울철이 되면 한파와 함께 우리 일상에서 스며드는 또 하나의 위험 요소가 있다. 바로 빙판길이다.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도로나 보도에 눈이나 비가 얼어붙는 현상은 흔히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보행자와 차량 모두가 사고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른 아침과 오전 시간대에는 빙판이 쉽게 녹지 않아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예방과 대처는 단순한 실천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빙판길에서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수칙이 있다.

우선, 평상시보다 보폭을 줄이고 천천히 걷는 것이 기본이다. 급하게 걷거나 발을 크게 내딛는 것은 중심을 잃기 쉽다.

또한,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걷는 습관은 위험할 수 있다. 손은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언제든지 땅을 짚을 수 있도록 자유롭게 두어야 한다.

그늘진 곳이나 경사진 길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며, 이런 곳은 빙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굽이 낮고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신발을 착용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겨울철 신발 선택은 단순히 보온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과도 직결된다.

마지막으로, 외출 전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풀어주는 것도 빙판길 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다. 스트레칭은 몸의 유연성을 높여 낙상 시 충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빙판길은 보행자뿐 아니라 운전자에게도 큰 위협이다.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겨울철에는 스노우타이어를 장착하거나 월동 장구를 준비하는 것이 기본이다. 도로가 미끄럽기 때문에 서행을 유지하고,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특히, 급발진이나 급브레이크, 급정차와 같은 갑작스러운 차량 조작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최대한 부드러운 운전을 실천해야 한다.

순창소방서는 이러한 안전수칙을 생활화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빙판길 낙상사고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이를 생활화하면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다.

겨울철 안전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 작은 실천과 주의가 결국 큰 사고를 막는 열쇠가 된다.

빙판길에서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도로에서의 미끄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신경 쓰는 것이 필요하다.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함께 실천해 보자.

/순창소방서



흥덕 당간지주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지정일 - 1973년 6월 23일

-소재지 - 고창군 흥덕면 교윤리 126번지

-시대 - 고려시대

문화재 열전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25년 1월 17일 금요일

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00022(출판) 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www.jeonbuktimes.co.kr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김관춘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 010-9645-4113	군산시 010-8641-7942	무주지 010-6411-0835	부안지 010-7247-3947
중양지 010-9678-4271	남원지 010-2285-3987	임실지 010-8642-6502	고창지 010-2258-3734
인후지 010-8640-6855	익산지 010-9560-3075	진안지 010-2433-1721	완주지 010-3672-0308
팔복지 010-3015-4791	김제지 010-4572-6112	장수지 010-8626-6049	
송천지 010-5242-3694	정읍지 010-2800-2934	순창지 010-5312-729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남원시보건소, 성과로 인정받는 보건사업

보건사업 11개 분야 우수... 2024년 함께 이룬 성과 토대로 2025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남원시보건소(보건소장 한용재)가 시민 맞춤형 명품 보건의료사업 추진으로 보건복지부와 전북특별자치도 등 주최한 각종 사업 평가에서 11개 분야의 기관상을 수상, 시민 건강증진 및 삶의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 보건사업 통합 성과대회 우수상(9년 연속 수상)과 의료취약계층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작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한 의료취약지역 격렬한 신규사업은 보건복지부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으로써 고려되어 가는 우리 시에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는 발판이 되었다.

또한 2024년도 공모사업을 통해 5개분야 국가예산 424백만원을 확보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우리 시 최초로 치매환자 돌봄 안전체계 스마트화 사업을 위해 복권기금 325백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이외에도 보건복지부 주관 치매안심마을, 요실금 치료지원사업,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 자살예방사업이 공모로 선정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이루어냈다.

2024년 보건소가 이루어낸 성과

◆ 의료취약지역 격렬한사업

의료취약지역 격렬한사업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교통의 불편으로 보건의료수혜가 취약한 지역의 만성질환자 대상으로 공중보건과 방문간호사 간 협력사업으로 의료 사각지대 해소 및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였다.

◆ 위생안전관리

위생안전관리를 위해 춘향제 및 남원3대축제(남원국제드론제전, 흥부제, 문화유산야행) 등 각종 행사 개최에 따른 푸드트러크와 먹거리부스 및 숙박업소 청결관리를 위하여 행사기간 동안 점검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또한, 남원시 인증업소 선정을 위한

영상공모전을 개최하여 선정된 5대 맛집을 우리 시 미식관광 홍보매체로 적극 활용하여 관광객 유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국가암검진사업

국가암검진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국가암관리사업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암검진 수검률은 23년도 기준 52.48%를 달성하였다.

◆ 감염병예방 관리사업

감염병예방 관리사업은 환자 조기발견을 통한 전파 차단이 중요함에 따라 취약계층 결핵검진을 위한 찾아가는 결핵검진사업을 적극 추진하였고, 관내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환자 발생에 따른 신속한 역학조사와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 협력한 결과 원인을 규명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서 2개 분야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었다. 또한 질병관리청 기생충 및 매개체 전파 질환감사에 따른 사업 수행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통합건강증진사업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시민의 건강생활실천력 제고를 위해 생애주기별·생활터 중심 지역주민과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년 연속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었으며, 올바른 식생활과 영양관리를 위해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계획 수립 및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치매관리사업

치매관리사업은 치매 예방교육과 조기발견, 치매 치료지원은 물론 시민의 인식개선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치매 예방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는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도 검사”와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를 가진 시민에게는 AI돌봄인형 “함양”을 각 가정에서 보급하여 인지훈련을 도왔으며 치매환자 중 정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돌봄 사각지대 재가 치매 환자대상 가정방문 개인별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

켰다.

또한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에 3년연속 선정되어 공설시장을 ‘치매안심시장’으로 지정하여 치매환자 장보기 훈련을 통해 치매 친화적인 환경개선에도 앞장서고 있다.

◆ 방문건강관리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전문간호人力이 건강취약계층 대상으로 폭염·한파기간에 집중 건강관리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추진으로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였고, 허약 및 만성질환 관리가 필요한 어르신 대상으로 건강앱(APP)과 스마트 건강측정 기기를 활용한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도내 유일하게 요실금 환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최대 규모인 싱싱생생 건강교실은 289개소 운영, 건강취약계층 어르신의 총합한 건강관리로 95% 만족도를 얻었다.

◆ 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정신질환자의 자립역량 강화 및 조기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해 시설 인프라 확대, 노후와 개선, 장비 보강을 통해 정신재활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모사업으로 자살예방사업이 선정되어 자해 청소년을 돕기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관내 학교에 심리안정기트를 배포하여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였다.

◆ 모자보건사업

모자보건사업은 건강한 임신부터 행복한 출산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산모신생아서비스 본인부담금 및 36개월이하 영유아 원진진료 교통비 지원을 통해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친화 행사로 가족사건 공모전을 개최하여 임신, 출산에 대한 시민의 인지도와 참여도를 높였다.

더불어 영유아 대상 영양관리,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아토피예방 관리사업 등을 운영한 결과 전라북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보건소 증축 조감도



▲ 건강생활지원센터 조감도



▲ 공공산후조리원 투시도

2025년 보건사업 추진방향과 달라지는 점

1. 보건의료 인프라 시설 확충

▶ 보건소 증축공사 완공

상시 감염병 대응체계의 일상 속 건강관리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총사업비 38억 원(국·도비 포함)을 확보하여 보다 쾌적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하여 전면 환경개선(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체면적 723.73㎡(219평) 지상 2~3층 수직증축으로 승강기 신설, 1층 진료실, 예방접종실, 재활운동실, 물리치료실 등 민원인이 많이 찾는 공간을 확장 배치하고 동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보건기관 개보수 및 그린리모델링 추진

농어촌의료특별서비스 사업 공모로 확보한 예산 501백만원(시설 298백만원, 의료장비 173백만원, 차량 30백만원),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 확보예산 1,087백만원으로 보건진료소 개보수 4개소(남계, 용산, 생암, 건지), 그린리모델링 공사 3개소(수지, 아영, 봉대) 예정이며, 공사를 통해 노후화된 시설·장비·차량 등 기능보강 및 인프라를 개선할 예정이다.

▶ 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오는 7월에 개관 및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센터는 남원시보건소와 지리적으로 먼 동부권 주민주도형 건강증진 거점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단련실, 어린이 건강체험관, 주민참여실 등 건강증진을 위한 공간들로 조성되며, 관련 전문인력이 상주할 예정이다.

▶ 전북특별자치도 내 최초 공공 산후조리원 개소

관내 산후조리원의 부재로 인한 산모의 원정출산에 따른 불편해소를 위하여 총사업비 116억원을 확보하여

남원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위치는 남원의료원 인근(고죽동 200-4번지)이며, 규모는 지하1층에서 지상4층으로 산모실(13실), 영유아실 및 편의시설 등 산모와 신생아만을 위한 수도권 최고 수준의 맞춤형 산후관리 시설을 갖춘 예정이다.

2. 감염병 관련 역량강화 및 보건사업 추진

▶ 공무원 대상 감염병 교육 의무화로 역량강화

감염병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5년부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 대한 감염병 교육이 의무화 된다. 감염병 교육을 통해 위기 시 공직자 감염 피해를 최소화해 정부 기능을 유지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 구강보건 이동차량 도입으로 생활터 중심 사업 추진

구강보건 이동차량은 2025년 하반기 도입됨으로써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구강관리가 어려운 취약계층 및 의료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 생애주기별, 생활터 중심으로 구강검진 및 올바른 칫솔질 교육, 틀니 관리법, 스케일링, 치아 홈 메우기 등 대상자별 맞춤형 구강예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치매환자 24시간 스마트돌봄 서비스 확대로 건강과 돌봄서비스 제공

올해에는 돌봄 안전체계 스마트화를 위하여 복권기금 325백만원을 확보하여 치매환자를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치매 환자 중 홀로 지내거나 부부가 치매 가정에 10종의 스마트기기를 설치하여 비대면으로 인지훈련은 물론 건강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24시간 스마트돌봄 서비스”로 300가구

가 지원을 받게 되며, 지체장애인과 치매환자의 배회를 방지하기 위한 실종방지기도 확대 지원한다.

▶ 제1형 당뇨병환자 치료비 지원 도입

2025년 신규사업으로 제1형 당뇨병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삶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3. 지역 맞춤형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으로 보건사업 체계화

남원시는 지난 6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우리시 지역사회 현황, 인구분포도, 건강문제, 보건인프라 건강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지역주민요구도와 지역사회 건강조사 통계자료를 근거로 수립한 제8기(4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기반으로 2차년도 24년도 시행결과와 3차년도 25년도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이번 심의를 통해 우리시 건강문제를 다시 살펴보고 취약한 건강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2차년도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과제별 수행내용 및 실적 등을 종합하여 성과 및 부진요인, 개선방안 등에 대한 자체평가를 통해 3차년도 계획수립 시 반영하였다.

2차년도 시행결과에서 개선방안의 내용과 연계하여 3차년도에 수행할 세부과제 시행계획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였으며 3가지 정책전략을 기반으로 9가지 추진과제에 대한 세부과제 21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바탕으로 보건사업을 추진하여 우리시만의 맞춤형 사업 추진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건강서비스를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편집=정혜민 기자



▲ 마음안심버스



▲ 구강보건교육



▲ 싱싱생생 건강교실



▲ 손씻기 교육